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璟 培

教會 青少年 教育을 위한 生活問題 分析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Living Problem
for Adolescent Education in the Church

1 9 9 7 年 2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洪 昊 洙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璟 培

教會 靑少年 敎育을 위한 生活問題 分析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Living Problem
for Adolescent Education in the Church

위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 9 9 6 年 12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洪 昊 洙

洪昊洙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6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曹 英 煥 

審査委員 金 環 培 

審査委員 金 善 宗 

- 目 次 -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青少年에 對한 理解	4
2. 青少年의 特徵	7
3. 青少年의 價值觀	19
4. 新世代 青少年의 價值觀	28
5. 青少年의 問題와 原因	32
III. 研究의 方法	42
1. 文獻 研究	42
2. 實態 調查 研究	42
IV. 結果 와 解釋	45
V. 要約과 結論	73

1. 要約	73
2. 結論	75
參 考 文 獻	77
Abstract	82
附錄	86

- 표 목 차 -

<표 1-1>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 대한 여러 호칭과 연령 규정	5
<표 1-2> 가치관, 태도, 동기, 동인과의 관계	24
<표 3-1> 연구 대상의 특성과 표집수	43
<표 4-1> 제일 고민하는 문제	45
<표 4-2> 이성교제의 유무	47
<표 4-3> 이성교제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	48
<표 4-4> 순결을 잃게된 대상	49
<표 4-5> 이성문제에 관한 상담 대상	50
<표 4-6> 이성문제 해결시 신앙생활의 도움여부	51
<표 4-7> 자신의 개인 생활 중 제일 고민하는문제	52
<표 4-8> 자신의 신체중 불만인 부분	53
<표 4-9> 성형수술 희망 여부	54
<표 4-10> 자신의 고칠수 없는 습관	55
<표 4-11>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의 유무	56
<표 4-12> 자살 고려 이유	57
<표 4-13> 자살 문제 발생시 신앙의 도움 여부	58
<표 4-14> 진로 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	59
<표 4-15> 진로 문제의 상담자 대상	60
<표 4-16>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의 의견차이시 해결방안	61
<표 4-17> 학교 생활 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	62

<표 4-18> 학교 선생님과 관계에서 문제되는 요인	63
<표 4-19> 가정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	64
<표 4-20> 부모의 외도에 대한 책임 대상	65
<표 4-21> 부모의 이혼에 대한 견해	66
<표 4-22> 친구문제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	67
<표 4-23> 친구와의 갈등 원인	68
<표 4-24> 신앙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	69
<표 4-25>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미치는지 유무	70
<표 4-26> 부모님의 신앙 계승 유무	71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현대 사회는 고도 산업화의 급격한 발달과 아울러 이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가치관 혼란에서 야기되는 제문제는 현대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방황과 좌절, 탈선과 범죄 행위는 그 빈도와 강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 성장에 주력하였기에 국민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반대 급부적인 현상으로서 비인간화와 물질 만능주의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하여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소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급기야는 가정과 학교,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차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 교회에는 가치관 혼란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특히 인간의 삶에서 가장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고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공해 주어야 할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목적추구를 위한 수단화된 인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잘못 형성된 가치관 교정을 위한 일에 교회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교회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제 문제 이를테면 이성 문제, 신앙 문제, 진로 문제 등은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이성 문제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개인 생활 문제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 문제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문제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친구 문제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가정과 부모 문제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일곱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는 그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3. 研究의 制限点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10개 교회(금성교회, 신성교회, 성인교회, 만민중앙교회, 양천중앙교회, 서머나교회, 성광교회, 햇불교회, 은혜제일교회, 서울교회)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데는 다소의 무리가 뒤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직접 제작한 것으로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II. 理論的 背景

1. 靑少年에 대한 理解

1) 靑少年의 概念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며, 학자들의 학문 영역에 따라, 나라 또는 국가의 이념과 사회 체제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여러 학자들의 학문 영역 별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이를 종합해서 정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범모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춘기와 청년기를 통칭하여 청소년이라 하고, 보통 12~14세경에 시작되며,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과 직업의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청소년 관련 법규는 해당 법규에 따라 아동, 소년, 미성년등으로 하고 그 연령 구분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 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층은 대체로 12~13세로부터 20세경까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참조).

또한 James Drever와 W.D.Frohlich는 청소년기를 16~25세에 걸친 발달 과정¹⁾으로 소년기와 성인 연령기 사이의 단계라고 말하였다.

심리학에서는 청년을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로 규정하고 소년을 초등학교까지의 연령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Bergius와 Roth의 심리학적 견해에 따르면 사춘기와 청소년기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보면 12~20세까지의 급성장 기간이 청소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버기스와 로스는 심리적 성숙 과정이 30세 이상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²⁾

<표 1-1>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 대한 여러 호칭과 연령 규정³⁾

	연령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아동 복리법	2조	아 동									
2	교 육 법	97조	학 력 아 동									
3	소년원 법	6조	연 소 소 년					연 장 소 년				
4	소 년 법	20조	소 년									
5	근 로 기준법	50조	연소자									
6	민 법	4조	미 성 년 자									
7	형 법	9조	형사미성년자									
8	전시노동기준법	3조	미 성 년					성 년				

심리학자 D.P.Ausubel은 청소년 개념을 완성 상황으로 보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과정으로 보았다.

생물학에서 보는 청소년기란 육체적으로 균형있게 발달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문화적 특성과 남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1) 발달과정이란 : 초생아에서 성년으로, 미개인에서 문명인으로,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발달하는 것을 말하며 육체적인 발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발달도 포함된다.

2) 권이중, 「청소년과 교육 병리」 (서울 : 양서원, 1940), p.19.

3) 현호생, 「현대 청소년의 문제와 교회교육」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1991), p.7.

다.

즉, 생물학에서 볼 때 청소년기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제 2의 증세인 신체적, 생리적 성숙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성적 성숙은 여자의 경우 12~13세에 시작되고 남자는 14~15세에 시작된다 그리고 이 육체적 성장은 여자의 경우 18~20세에, 남자의 경우는 20~22세에 멈춘다고 설명된다.

사회학에서 보는 개념은 특히 H. Schelsky의 유명한 저서 「회의세대」에서 다루어졌다. 셀스키는 청소년기를 회의 세대로 보고 청소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단계로서 아동의 역할은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의 미성숙으로 사회 체제들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셀스키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연령을 14~25세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학적 측면에서 Poggeler는 인간성장 중에 청소년기만을 따로 떼어 개념화할 수 없으며 ‘이것이 청소년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청소년기를 단지 성취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자유권·자율·믿음·윤리 등의 개념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규정하는 철학·인류학적 접근 및 종교학적 청소년의 개념 설정이 있다.

결국 ‘청소년’이란 개념은 명확히 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육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은 한 나라의 사회·문화 척도에 따라 다르며,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사춘기와의 연계성 등으로 학문 영역에 따라 다

양하게 규정되지만, 그 한계가 분명치 못한 형편에 있다.

위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서 대략 9~13세에서 부터 22~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교육·지도·육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이하의 연령까지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⁴⁾

2. 靑少年의 特徵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평가해 보면 성인의 수준에 모든 것이 도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이란 부모를 의존하는 아동기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자립하는 성인기로의 전환점이며 심리학적으로는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주변인적 상태를 말하며 이 시기에도 독특한 성향을 보이며 발달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⁵⁾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의 특징을 알고 적당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선교를 이루고자 한다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징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권이중, 전계서, pp. 20~21.

5) Rolf E. Muuss, 『청소년 이론』; 송종두 역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1), p.10.

1) 身體的 特徵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신장이나 체중 그리고 성적인 성숙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변화는 신체적인 면이나 생리적인 면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도록 해준다.

특히 제2차 성장이 나타나면서 남녀의 구별이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적 욕구를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신체적 발달은 미쳐 균형을 갖추기도 전에 계속 이루어지므로 신체의 불균형과 함께 정서적인 면에서도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신체의 발달은 주로 신장과 체중, 그리고 흉위의 측정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체 성장은 생후 1개월간의 급격한 발달이 있는 후 비교적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고른 성장을 보이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다시 현저한 성장을 보이게 된다. 12세부터 14세까지는 여자가 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15세 이후로는 남자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⁹⁾ 20년전의 체격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크게 신장된 것은 영양 섭취 상태가 매우 좋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의 경제 형편이 호조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F. K. Shuttleworth에 의하면 골격의 급격한 성장은 사춘기 1,2년전에 시작되며 그 평균 연령은 여자에 있어서는 12~16세, 남자에 있어서는 14

8) 강주태, 전계서, p.31.

9) 문교부, 「전국 학생 체격 통계표, 1962년과 1982년 비교표, 「청소년 백서」, (문교부 1983), p.255.

10) 상계서, p.260.

~18세라고 한다.¹¹⁾ 그런데 이와 같은 신장, 체중, 가슴둘레의 급격한 발달과 그 발달 시기의 개인차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고 성적인 성숙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정신적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¹²⁾ 청소년기에 자기의 체격, 체력, 용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①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 의식이 민감하게 되어 자신의 신장, 체격, 체력을 타인과 비교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성적인 발육과 더불어 성적 감각이 민감해짐에 따라 외모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다.

② 청소년기는 도덕적 인격적 가치를 의식하고 높은 척도를 자기에 맞추는 것과 같이 미적 가치에 대해서도 뛰어나게 민감하여서 높은 척도를 자기에 맞추려고 한다.

따라서 이 때는 남녀가 자신의 신장의 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는 미추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¹³⁾

한편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은 상체 와 하체의 급격한 발달과 여자에 있어서는 골반이 발육된다는 점이다. 특히 여자의 골반은 폭이 넓어지고 근육과 피하지방의 발달이 촉진되어 여성다운 체형이 형성되는데¹⁴⁾ 이러한 체형의 변화는 지금까지 해 왔던 운동이 서툴러 지는데 달리기, 던지기, 뽀뽀기와 같은 과격한 운동은 자연히 피하게 되는 경향

11) F. K. Shuttleworth, 「The Physical and Mental Growth of Boys and Girls Age 6 to 19 in Relation to Age at Maximum Growth」 1939. p.37.

12) 안재정, 「중고생 성교육과 상담」(서울 : 한국기독교 청소년 선교회, 청소년 총서6, 1984), pp.82-82.

13) 계광개, 「청년심리학」(서울 : 금자서방, 1964), p.32.

14) 김용수, 「청소년 문제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1981), p.7.

을 보인다. 그 결과 근육은 남자에 비해서 약화되며 운동에 대한 흥미도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도 있지만 국부적인 발육치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 동작도 꺾어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크나큰 고민을 일으켜 열등의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내분비선의 변화 때문에 남녀의 차가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는 10세경부터인데 그 후 수년 동안에 그들의 신체 모습은 아주 달라져 이때에 생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 2차 성장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시기와 정도에서 남녀의 차가 생기지만 사춘기를 전후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자.¹⁵⁾

(1) 제 2차아가 발아한다. 이것도 사춘기에 발생하는 특징이다.

(2) 음모(Pubic hair)가 발생한다. 처음에는 착색돼 직선 연모로 나타나지만 후 사춘기에 가서는 축도 현상을 보인다.

(3) 변성(Voice change)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위 Voice Change는 남녀 다같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보통 여자는 남자와 같이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대체로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중3과 고1을 거치면서 변성을 거의 마친다고 한다.

(4) 여자의 유량이 보인다. 유량 현상이란 유두(nipple)의 주위가 단단해지고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유량의 변화로써 사춘기 초기에 소위 유두가 뚜렷해지고 다시 중2 때에 가서 유량이 자리를 잡아 고2 때가서 대체로 성인에 가까운 성인의 풍만함을 보인다.

(5) 남자는 여자의 통경현상에 해당되는 전통 현상(Semoinale miss-

15) 안재정, 전게서, pp. 261-276.

ions)을 볼 수 있다. 중1 내지 중3부터 고3내지 대1사이에는 대체로 이를 체험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부터 본다면 유정→동정→자위행위→이성상상→도색소설→영화의 키스 장면→이성과의 접촉의 순서로 나타난다.

(6) 여자에게는 초경이 있다. 초경의 평균 연령은 연구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14~15세라고 한다. 따라서 중1부터 중2사이에 그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근년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평균 연령이 빨라져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이를 체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7) 성별적인 체형이 형성되고 안면 윤곽도 달라진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입술 및 수염의 생성인데 이것 역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거칠고 뾰뾰해지며 또 채색화되어 진다.¹⁶⁾

이러한 신체 변화는 곧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자신에게서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놀람과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며 자신에 대해서도 감동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성장 중에 나타나는 불균형으로 어색해 하고 자기를 의식하며 성적인 욕구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¹⁷⁾ 이제까지 동성에게 보이던 관심이 이성에게로 향하게 되고 친구 관계도 단짝을 찾아 사귀는 깊이를 우선으로 하며 친구 사이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의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기도 한다. 신체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독

16) K. C. Karrison, 「Psychology of Adolescence」 (6th ed.), (New York : Prentice Hall, Inc., 1965), p.49.

17) 게리 콜린스, 「크리스찬 카운셀링」 ; 피현희 · 이해련 역 (서울 : 두란노서원, 1988), p.312.

립하려는 새로운 정신이 생기며 보다 추상적이고 자기 비판적이며 숙고하는 사고가 발달한다.¹⁸⁾

결국 가족간의 대화는 적어지고 대신 혼자만의 시간과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며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영웅심리에 의한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가 발달하는 중에 나타나는 정서적, 사회적 특징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신체 발달과 이에 따른 정신, 정서적 변화는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상담을 위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두는 것은 매우 요긴한 일이라고 하겠다.

2) 心理的 特徵

청소년의 심리는 쉽게 변하고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¹⁹⁾ 아주 사소한 일에 슬퍼하거나 크게 소리내어 웃는 등 다분히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²⁰⁾

심리를 구성하는 정서는 행동의 기초로써 행동의 표출 방법과 방향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정신 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정서는 가장 근본적인 자아 체험이며 특히 청소년기는 각종의 생활 감정이 발달하므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²¹⁾

(1) 일생 중 가장 자의식이 강한 시기이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

18) 상계서, p.313.

19) 민영순, 「발달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1982), p.300.

20) 조석원, 「교회학교 교육 계획서」 (서울 : 양서각, 1986), p.147.

21) 상계서, p.171.

문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무의식에 속해 있던 영역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된다.

(2) 남들이 언제나 자신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소한 일에도 얼굴을 붉히며 실수를 두려워하며 남들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3) 지적인 능력이 부모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면 부모를 무시하거나 존경하지 않게 되는 일도 자주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권위에 대한 도전받는 위기가 생겨날 수 있는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

(4) 말보다 개념을 오래 기억한다. 결국 암기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며 상담의 진행도 같은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청소년들은 그의 또래 집단(peer group)에게 인정받을 필요를 느끼며 심지어 부모보다는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한다.²²⁾

(6) 청소년들은 불안정하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크게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새로운 욕구가 생기며 또 환경도 그에 따라 넓어져가기 때문에 자신과 환경의 대립이 심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이 자기와 환경과의 대립, 또는 욕구 상호간에서 생기는 갈등은 청소년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정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그들을 당황케 한다.²³⁾

(7) 청소년들은 기분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기분이

22) Rolf E. Muuss, 송정두 역, 전게서, p.10.

23) Malm M. and Jamison O. G, 『Adolescence』(New York : McGraw. Hill Book Co., 1952), pp.205-210.

란 말은 실망과 낙담을 상당히 잘 하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잘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첫째 실현성이 없는 공상을 하거나 또 언제나 지나치게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둘째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면 이 세상이 그들의 곤란과 무능함에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8) 청소년들은 성적, 이성, 관계, 기능, 신체적 결함, 의상등이 항상 관심과 고민거리이며 이것들이 노출될까봐 매우 두려워한다. 특히 가족간에도 자기만의 공간과 비밀을 갖고 싶어하고 친구간에는 단짝이외에는 모든 관계의 문을 버리되 특히 단짝을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9) 청소년들은 예민하다. 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비판 또는 훈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접적인 위협과 권위의 행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항을 나타내며 기쁨, 슬픔, 질투, 수치감, 사랑과 같은 정서는 매우 강렬한 모습을 띠며 극단으로 달리기 쉽다.²⁴⁾

(10) 청소년들은 한 가지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모험과 운동에 쉽게 흥분하고 열중한다. 좋아하는 팝 음악을 귓가에서 떼지 못하는 습성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헤드폰을 귀에 꽂지 않으면 허전해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주장마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심리적 특징의 상당한 부분은 신체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힘도 세어지고 키도 크고 체중도 늘어나면서 자아를 인식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강렬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가 하면 사색을 통해서 절망을 체험하게

24) 윤태림, 「청년심리학」(서울 : 법문사, 1981), pp.20-21.

되며, 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심리적 회의와 절망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성장과 성숙은 전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상담의 영역도 그만큼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홀로 사색하며 얻은 결론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해결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²⁵⁾ 항상 도움을 청할 사람이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상담은 이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훈련된 상담가는 신뢰 가운데서 항상 만남을 통해 만족과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주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고민하며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들과 상담은 좋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3) 靈的 特徵

오늘날은 과학과 합리의 시대이다. 본 것과 만지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하는 분위기 속에²⁶⁾ 증명을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요구로 인간의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청소년기는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이다. 급격한 감정의 변화와 함께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고독감은 인간을 한없는 절망으로 몰아가게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스러움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선언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절망에서 극복하

25) 안재정, 「비행 청소년의 의식」, (서울 : 한국 기독교 청소년 선교회, 청소년 선도 총서1, 1984), p.219.

26) 서봉연·유안진, 「인간발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5), p.185.

27) 상계서, p.190.

28) James C. Livingstone, 『Modern Christian Thought』 (New York : McMillan Publishing Co., 1971), p.312.

고 일어 설 수 있는 비결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세주를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절대자를 향하는 습성이 있다.²⁹⁾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시절을 지내면서 나타난다.

청소년의 신앙적 특징은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 구조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등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의심이 끝없이 생겨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면 한도 없는 질문이 쏟아지는데 다분히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향이 있다.³⁰⁾ 이러한 양상은 불신앙 상태의 청소년 등에게도 다분히 나타나는데 성경에 대한 본질과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를 지음 받고 그의 생기를 부음 받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³¹⁾ 본질적인 인간성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젊은 날이 다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선교는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영국의 Ronald Goldman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종교 발달이라고 정의한 후 Reading대학교와 Minnesota 대학교에서 1964년 강의를 통해 “Religious Thinking Childhood to Adolescence”를 내놓았고, 1965년에는 “Readiness for Religion”이라는 연구 결과를 출판하였다.³²⁾ 그는 피아제의 지능 계발 단계 구조에서 암시를 얻어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를 얻

29) 박영선,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서울 : 새순출판사, 1985), p.110.

30) 조원석, 전제서, p.172.

31)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참조.

32) 김난예, 「골드만의 종교사고 발달과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1984), p.91.

어냈다.

제1단계 : 직관적 종교 사고(intuitive religious thinking, 7~8세) 문제의 비본질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사고의 전환이 부족하며 지적으로는 종교적 견해에 대해 현실적인 통찰을 할 수 없는 시기이다. 더욱이 논리적인 사고 방식의 이해가 아니라 환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모든 상황을 단순화시켜 사고하기 때문에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한 무기력함은 도달된 결론에 비추어 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불일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즉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³³⁾ 그러므로 골드만은 이 시기를 전종교기(pre-religious stage)라고 하였다.³⁴⁾

제2단계 : 구체적 종교기로서 (concrete religious thinking) 정신연령이 13,14세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는 조작 분류가 가능하나 다른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조작과 분류가 불가능하며 용어 자체를 내용으로 보는 경향이 짙은 시기이다.

또한 성공적인 연역적, 귀납적 논리에 쓰여지지만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들, 시각적인 경험들이 감각적으로 데이터로 한정되고 분류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계적인 사고도 일어나지만 하나의 일반화는 없다.³⁵⁾ 점차로 조작적 사고(operational thinking)로 옮겨져 조금 더 현실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한 때는 소위 부종교기(sub-religious

33) D. H. Rushell, 『Childrens Thinking, Quoted in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 The Seabury Press, 1986), p.52.

34) 주선애, 『유아의 종교교육』 (교회와 신학 제11집, 1979), p.150.

35) R. Goldman, 전제서, p.52.

stage)로서 연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생활 경험에 관여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된다.³⁶⁾

제3단계 : 추상적 종교기(abstract religious thinking)는 종교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 이때는 구체적 종교기에서 발전하여 연역적, 상징적 사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이해가 가능하여 진리의 의미 탐구와 추상적 가설도 세울 수 있게 된다. 특히 추상적 종교기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일관성있게 나타나게 된다.³⁷⁾

청소년기는 신앙에 눈을 뜨는 시기이다. James W. Fowler는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을 전제로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정립한 바 있다.³⁸⁾ 신앙은 한 인간의 기본적인 알맹이, 즉 그 신앙에 따라 잇게 되는 모든 것을 색깔 짓고 형태 짓는 근본적인 초점, 즉 근본 성향 또는 방위이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신앙적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³⁹⁾

1) 종교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신앙을 원한다.

2) 철학적인 종교나 형식적인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실제적인 행동, 봉사, 실천하는 종교를 원한다.

3) 자기 행동과 미래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4) 세상을 향하여 타협을 맺는 방법과 신앙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36) 주선애, 전계서, p.157.

37) 김난예, 전계서, p.94.

38) Thomas H. Groome,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과 신앙교육」(교육교회, 1984.2), p.114.

39) 조석원, 전계서, p.171.

5) 영향력을 지니는 다른 이들의 기대와 판단에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한다.

6) 중·고등학교 시절은 여전히 신앙이 자기 선택이 아니고 주장하는 강요된 권위와 더불어 계속 관습적인 모습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신앙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⁴⁰⁾

3. 靑少年의 價値觀

청소년은 생리적으로 발육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도 형성과정을 겪는 상황에 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하고 동요가 심한데 위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 때문에 가치관이 분극화되는 현상까지 가세하게 되면 사춘기의 청소년은 현실 사회와의 차단 또는 그로부터의 도피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태도에 몰입하여 쉽게 비행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⁴¹⁾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른바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이 규범에서 탈선하려는 비윤리적 성향을 가진 탓이 아니라 기존 윤리관 또는 가치관에 유혹을 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⁴²⁾ 또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 속에서 성장하며 다른 동료들을 경쟁자로 보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는 의식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음이 특징적이라 하겠다.⁴³⁾

40) 소더 홀름 지음; 양은순 옮김, 『학생을 이해하려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pp.138~140.

41) 이한교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춘천 : 강원대 논문집, 1980), p.278.

42) 정영모 외, 『한국 교육의 미래』 (서울 : 배영사, 1972), p.278.

43) 김재은, 『자녀의 의식 구조와 자율성 지도』, "선도" 제 2호 (서울 : 전국검찰소년선도 위원 연합회, 1991), p.83.

1) 價値觀의 概念

사람에 따라서는 '가치'라는 개념과 '가치관'이라는 개념이 혼용하기도 하나 양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해 보면 '가치'라는 개념과 '가치관'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하에서는 양자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 그 관계를 규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가치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한다.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R.M.Wliam은 가치를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우선적 관심(preferent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상황, 사건, 사물을 지적하는 용어”로 정의하고⁴⁴⁾, R.Linton은 가치를 “일련의 상황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개인의 내면적 반응을 환기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라 정의하며⁴⁵⁾, F·R·Kluckhohn은 가치를 “우리의 관심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용가능한 목표, 수단, 행동양식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⁶⁾ 한편 국내 학자로 정범모 교수는 가치를 “선택상황속에서 어느 쪽을 취하느냐에 작용하고 또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선택 결정하여야 하는 견지에서 볼 때 가치관 하나의 의지 작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⁷⁾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념 논의가 있기도 하나, 학자들의 위와 같은 논의

44) R .M. William Jr., *American Society* (New.York.: Alfded A. Knopf), pp.374-375를 인용한 이계백, 『공사생도 가치관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2), p.7.

45) 고용복, 『사회 심리학』(서울 : 진명사, 1971), p.97.

46) C. Kluckhohn, and Others, 『Value-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Toward a Geneval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and E.A.Shils,(ed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395.

47)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서울 : 배영사, 1985), p.297.

를 종합해 보면 가치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의 행동 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행동 방향 선택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행동 목적, 행동 형태, 행동 방법에 따라 어느 한 방향을 선택,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지칭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욕망, 동기, 기호, 흥미, 태도 등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가치관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다. 외국 학자로 Newcomb는 “행동의 목표와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으로 정의하고⁴⁸⁾ F.R.Klöhn과 F.L.Styoodtbeck는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 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와 방향을 주며 공통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견을 주는 것으로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평가 과정의 세 요소, 즉 인지적, 정의적, 방향적인 완전한 상호 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며 이러한 평가 과정은 공통된 인간 문제의 해결에 관련되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간 행위와 사상에 대해서 질서와 방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⁴⁹⁾, Kurt Baier는 가치관을 “행위의 이용 가능한 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⁰⁾

48) 황용연,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4), p.8.

49) 황정규, 「교육평가」 (서울 : 교육출판사, 1972), p.614.

50) Kurt Baier 「What is Value? An Analysis of the Concept」 in Kurt Baier and Nicolas Rescher (eds.), Value and the Future, New York : Free Press, 1971, pp.32-36

한편 국내 학자로 정범모는 가치관을 “여러가지 문제에 관하여 행동 방향 선택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⁵¹⁾, 가치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크게 결정한다. 둘째 가치관은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셋째 가치관의 여하는 우리가 인생의 어디에서 만족과 의의를 얻느냐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넷째 가치관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평가 기준을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행동 내지 행위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하는데 불가결한 규율을 제시해 준다.⁵²⁾

또한 이상주는 가치관을 “개인의 행동 특성과 사회의 문화 형태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라 하였으며,⁵³⁾ 김태길은 “선, 악, 시, 비 따위의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인 동시에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⁵⁴⁾ 가치관에 대한 이상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가치관이란 결국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행동 목표와 양식의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밑에 즉, 가치는 구체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함에 비하여 가치관은 일반성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이 적용되는 범위는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도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동 장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것으로, 가치관은 사회 구성

51) 정범모,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과제』 (서울 : 제5회 청소년상 심포지움, 1979, 10, 25), p.128.

52) 정범모, 전계서 pp.18~21.

53) 이상주, 『가치관 형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3), p.11.

54) 김태길, 『우리들의 가치관 의식과 한국의 장래』 월간중앙 9월호, (서울 : 중앙일보사, 1973), p.64.

원 개인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치와 가치관에 대한 개념 논의를 분석하여 보면, 가치의 개념이 적용되는 행동 장면의 내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바로 가치관인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價値觀의 形成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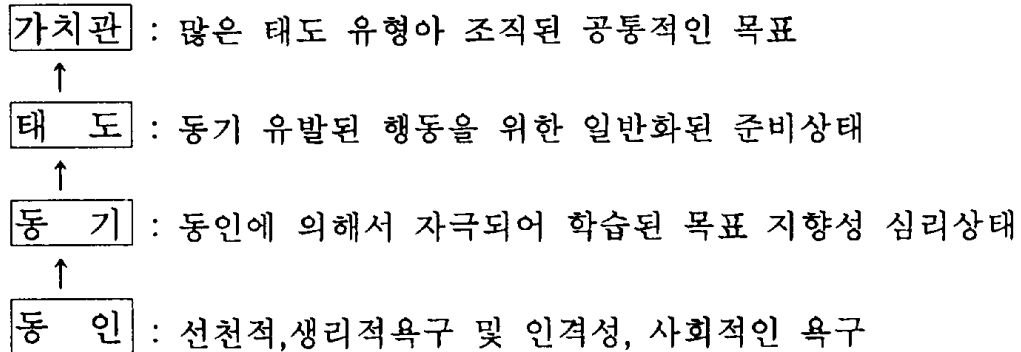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 정원식은 Bloom의 주장을 참고하여 가치관의 형성과정을 감수,반응,가치화,조직화,성격화의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⁵⁾ (1)감수(receiving)-학습자가 어떤 자극이나 형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2)반응(responding)-현상이나 자극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넘어서 반응하는 것. (3)가치화(valuing)-감수하고 반응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4)조직화(organization)-여러가치를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는 것. (5)성격화(characterization)-가치의 조직화를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 행동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 한편 T. M. Newcomb는 가치관을 특정 사물에 대한 태도를 종합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 정의하면서 가치관, 태도, 동기, 동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음의 <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⁵⁶⁾

55) 정원식, 『정의의개념과 학습』 정의의 교육, (서울:배영사, 1969), pp.18~25.

56) T. M. Newcomb,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44~45.

<표1-2> 가치관, 태도, 동기, 동인과의 관계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 M. newcomb는 개인의 행동 성향을 결정하는 시발점으로 생리적 욕구로 구성된 ‘동인’이 작용함으로서 바로 윗단계인 ‘동기’에 자극을 주어 어떤 방향성을 갖는 행동성향인 ‘동기’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다음 단계인 ‘태도’ 즉,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준비상태를 형성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최종 단계 혹은 높은 수준의 단계인 여러 태도군의 공통적인 목표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관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모형을 설명하면서 뉴콤스는 일방통행 방식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동기는 동인에 의해서도 자극되지만 태도나 가치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⁵⁷⁾

위에서 살펴본 정원식과 뉴콤스의 설명은 다소 방법의 면에서는 다르지만 가치관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가치관도 사람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식과 학

57) 정은영,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회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96,). pp.22~23.

습을 통하여 보유하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논의는 특히 가치관을 학습하고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과 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3) 價値觀의 形成要因

먼저 가치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Piaget는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책임있는 사회 기관(Social-Agency)을 바로 교우 집단(동료집단, peer-group)이라고 지적하였고, Willson은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에서 “학생의 가정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그 학생의 가치체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그가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즉,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그 학생의 태도와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더 큰 작용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Coleman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여러 교우집단이 지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교의 지적인 풍조는 더욱 고조된다”라고 보고하였다.⁵⁸⁾

한편 정원식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기체(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함)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정 환경, 동료집단, 대중 매체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⁵⁹⁾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다. 이는 가정 환경에서의 부모나 역할체

58) 정원식, 「교육환경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77), pp.55~56.

59) 정원식, 전거서, pp.55~57.

제에 중점을 두고 부모의 모형 학습(model-learning)에 따라 동일시 과정을 통하는 가운데 내면적으로 아동의 가치관이 형성되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보상과 죄의 강화작용에 의해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료집단의 영향이다. 동료집단(peer-group)은 일차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 재구성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 매체의 영향인데 이는 특히 라디오나 T.V 같은 전파 매체의 여러 프로그램이 상당히 일관성있는 가치관을 은연중에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일관성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시청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치관의 형성은 주변 환경과, 그것과 관계하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큰 차이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동물'의 성격을 띠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각 개인은 그가 속한 소집단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아 그 자신의 행동 방향성 즉,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학자들의 논의에는 그 중 동료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점을 청소년에 투영시킨다면 청소년은 학교 환경 특히, 교사와 친구로부터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정원식의 분석처럼 각 개인은 동료집단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부터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가정은 개인이 학교 생활 이전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인간 관계를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화의 기초적인 것을 습득하는 장소이므로 가치관 형성의 기초라 아니할 수 없다. 김재은은 이점을 간파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자녀 성격을 결정짓는 중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⁶⁰⁾

학교는 큰 테두리의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학교 자체가 하나의 사회를 이룩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즉, 학교는 사회 속에서 사회의 중요한 기능인 교육적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사회 속에 있는 사회 제도와 직접, 간접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⁶¹⁾ 학교는 학생들에게 있어 비교적 장기간 생활화하는 장소이므로 가정 교육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⁶²⁾

교육을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분명히 교수 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학교를 인격을 닦고 지식을 기르고 교양을 길러주는 곳, 즉 인간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으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근래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펴볼때 전 인적인 교육으로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보다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사회 생활도 가치관 형성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 체제 내부에 각기 다른 고유의 욕구와 인성을 가진 개인의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성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⁶⁴⁾ 그런데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 기준을 혼란시키고, 사

60) 심지선, 「가정, 학교, 사회의 협동,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지도」

(서울 :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 1985), pp.154-155.

61) 박용현, 「학교와 사회」 (서울 : 배영사, 1973), p.24.

62) 김홍규, 「생활지도」 (서울 : 세광공사, 1981), p.146.

63)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1973), p.18.

64) 박용현,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 교육 출판사, 1973), p.24.

회 구조도 복잡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가치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 가치관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사회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선진적인 것인 반면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비하여 일관성이 없어 문제로 제기되는 면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이 등·하교시에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보다 오히려 학습 효과가 큰 것을 알수 있다. 비교적 보완적이고 변화의 속도가 느린 가정, 학교에서의 교육 태도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 환경으로부터 받는 충격과 영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치 모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자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사회관 및 자아 개념, 가치관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료집단이나 친교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이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리를 요약하면,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유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심리적 환경 내지 심리적 과정을 거쳐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4. 新世代 靑少年의 價値觀

1) 新世代의 概念과 特徵

1990년대에 접어들어 매스컴을 필두로 학계, 예술계, 기업 등으로부터 논의의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세대, 혹은 X세대로 통용되는 이른바

‘New Generation’은 가치관, 의식, 생활 패턴, 소비 스타일 등에 있어서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세대라 함은 그 대상을 미혼 계층과 대학생을 포함한 13~19 세까지의 10대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⁶⁵⁾, 발달 심리학 분야와 같이 대략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약 10년인 12~22세 사이 연령층을 일컫기도 한다.⁶⁶⁾

이같은 신세대의 출현은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소비 중심으로 개편되고, T.V나 비디오, 컴퓨터 등의 대중 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층의 의식과 감성이 감각적이고 이미지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정보 통신망의 발달과 해외 문화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청소년층의 의식이 개방화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니게 된 점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세대들은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나만의 것, 나만의 생활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사고와 개성을 중시하는 등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에 대한 태도도 순결이나 결혼 제도를 중시하는 기존의 관념과는 달리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덕적인 면에서도 규범이나 규칙과 같은 공동 생활의 질서를 벗어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신세대들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신세대들은 자아 정체감(identity) 확립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먼저 청소년들은 독립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특징이

65) 박무익, 『광고정보』 “청소년 시장의 규모와 정의” (한국방송 광고공사, 1983), pp.9~12.

66)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 의식 구조 및 형성 배경』 (한국교육개발원, 1983), P.13.

있다. 즉,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감정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동일시해온 부모와 자신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옹호하고 부모의 것을 비판함으로써 부모의 권위와 의존성에서 탈피하려 하며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동년배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다.

부모에게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부모의 권위와 결정에 따라 행동하였지만 독립성과 자주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부모의 자리를 대치할 새로운 대상으로 동료 집단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부모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는 동년배에 대한 강한 동조 현상을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결국 신세대는 기존의 권위적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 감수성과 이미지를 강조하고, 영상 문화 환경, 컴퓨터를 통한 놀이 문화, 의사 소통 수단, 소비 문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태도의 저항 문화 분위기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고 상충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⁶⁸⁾

2) 新世代의 價値觀

신세대는 생물학적 ‘연령 개념’이 전제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들의 생

67) 현호생, 『현대청소년 문제와 교회교육』(침례신학대학 신학 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1991), p.29.

68) 박명진,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 문화” “포스트 모던 문화의 관점-신 세대의 감성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계양사관』가을호 : 1981. p.238.

활 태도에 있어 기성세대의 청소년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과 세계에 대한 의식은 기성세대와는 두드러지게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근세 서유럽에서 강조된 바 있는 이성에 기초한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선적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근세 유럽의 개인주의는 참된진리와 인류의 탐구를 목적으로 선정한 다음 이성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신세대의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의 감정에 좌우되는 '감각적 개인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세대는 개인의 소신에 따른 행동을 중시하면서 종래의 획일주의, 권리주의, 전체주의를 전통적인 사회의 산물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저항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유교적 농경 문화로부터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신세대들의 가치 기준도 자기 만족과 자기 개발에 비중을 두고 설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신세대는 자본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경제적 잉여를 축적한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탓에 소비 지향적인 생활풍조를 드러내고 있는데, 컴퓨터의 사용의 일반화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컴퓨터의 대중화를 통하여 신세대는 빠른 속도로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게 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과 과학적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신세대는 전통적인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볼 때, 반항하는 세대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건전한 가치관의 보유 계층으로 이해하고 교정적 관점에서 신세대의 가치관을 평가하려 함으로써 신세대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기성세대의 문화를 질서지향적 문화, 정신의 문화, 가난의 문화라고 하면 신세대의 문화는 짜집기와 무질서 속에 혼돈된 문화, 육체의 문화, 풍요의 문화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신세대의 가치관은 각자의 개인주의적 이기심을 우선하고 내면적 가치보다는 외면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신세대를 둘러싼 모든 환경, 즉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신세대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바꾸어 기성세대의 의식 수준을 좀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⁶⁹⁾

5. 靑少年의 問題와 原因

1) 靑少年의 問題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문제를 인간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제도적 문제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69) 이상은·장종철, “한국의 신세대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제353집, 1994), pp.33~37.

(1) 인간적 문제

청소년 문제를 인성적인 면에서 분류한다면 대인 관계의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정신적 갈등의 문제, 욕구 충족의 문제, 그리고 자살 문제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대인 관계의 문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가지고 있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타인들과의 관계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문제의 요인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들보다 동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며, 특히 이성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갈구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한 확고한 지침(guidelines)을 세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 한다. 이러한 대인 관계의 긴장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② 성에 대한 문제

청소년기에 성적인 변화는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변화가 외모의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갑작스런 성 충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못할 때에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에 청소년들은 충분한 성 지식을 갖지 못하고, 성적인 공상, 수음 등으로 성 충동에 대응하며, 이 결과로 오는 죄책감과 수치감 등은 가끔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성 충동과 더불어 청소년들은 이성과의 데이트를 간절히 원하게 되나 동시에 데이트를 두려워하며, 가끔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청소년끼리의 성 관계로 청소년기의 임신의 문제,

또는 성 범죄의 문제들도 생겨날 수 있다.⁷⁰⁾

③ 정신적 갈등의 문제

청소년은 주변 환경의 영향 탓으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세대차에 의한 갈등의 문제와 그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의한 의식적인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세대이다.

④ 욕구 충족의 문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이유기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감성적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려 하는데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여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반발하는 경향을 띤다고 한다.⁷¹⁾

⑤ 자살의 문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청소년 자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자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학교 교육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자살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성세대·학부모들을 매우 당혹케 하고 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 학생들은 감수성의 예민한 반응으로 사소한 일에서 생기지만 중등 학생들은 학교공부의 부진, 진로문제, 부모와의 나쁜 인간관계 등을 자살 동기로 삼고 있다.

현대 사회의 고학력 지향의 반영, 자녀들의 과잉보호, 부모의 지나친 기대, 진학 경쟁의 몰두, 사소한 욕구 불만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등이

70) 총회남선교회 지도 위원회, 『교회와 청소년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p. 145.

71) 정은영, 전계서, p.35.

자살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학생 자살 시기가 4월, 9월, 12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가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는 약 70~80%가 예고하는 증세가 있다고 한다. 부모나 교사 및 기성세대들이 이 예고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을 구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자기를 자살로 몰아가며 자기를 도피하려는 심성과 구조 받고 싶은 마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쪽 바램에 갈등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교사들은 이 시기를 잘 찾아서 청소년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⁷²⁾

(2) 환경적 문제

① 가정 환경 문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로 규정되는 오늘날, 오붓하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교육 혁명, 직업 혁명, 부업 혁명, 제도 혁명을 통해 귀중한 가정이 상실되었다. 특별히 가정의 교육 기능 상실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탈선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정 기능의 붕괴와 그로 인하여 가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기인된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하나인 가출 현상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가정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의 불안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부터 이탈하게 됨으로 일어난 현상인 것이다.⁷³⁾

72) 권이종, 전게서, p. 127.

② 사회 환경 문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인격형성과 행동발달에 끼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좋은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하의 36년은 한국 역사의 단절을 가져 왔으며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고, 해방 이후 밀어닥친 서구 문화는 심각한 가치와 제도의 변화를 가져와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하여 조국 근대화란 목표 아래 이루어진 경제 개발 정책은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의 물질주의를 팽배하게 만들었다.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경험한 경제적 성취와 불균형, 정치적 격동과 좌절,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가치 질서의 혼란 등은 80년대에 들어와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드러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물질적인 발전을 기적적이라 할 만큼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적 발전기반은 형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의 청소년들은 바로 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사회 문화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기성세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역사적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동안에 청소년들은 방임과 결핍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

73) 총회 남선교회 지도위원회, 전게서, p. 56.

을 수 없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가치 또는 규범에서 어떤 일관성이 결여된 사회 환경에 처해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초래하는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갖게하고 새로운 세대로 보여지게 한다.

흔히 논의되는 세대차나 청년 문화도 생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세대차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생활 세계에 질적인 차이가 생기는데서 연유한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청소년기)의 시대적 생활 경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세대간의 가치관의 격차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생활 세계의 차이는 청소년들이 부딪치는 문제의 성질을 다르게 한다.⁷⁴⁾

(3) 제도적 문제

① 학교 교육의 문제

참다운 학교 교육은 지식습득보다 인성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우리의 학교 교육은 학습 활동에만 주력함으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바, 이같은 공적 교육은 보완할 수 있는 사회 교육 분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함으로써 청소년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교회 교육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74) 권이종, 전제서, pp. 137~138.

② 윤리 문제

가치관은 인식한 지식을 활용하여 사항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 종국에는 윤리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학자에 의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를 청소년의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공적 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교회 교육이 바로 이 분야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⁷⁵⁾

2). 靑少年 問題의 原因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학교, 사회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정적 원인

현대의 가정은 핵가족화되는 한편 부모의 맞벌이,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정 교육의 부재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 청소년 문제에 빠지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결손가정 현상이 부가될 때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치닫는다는 것은 통계를 통하여도 지적되고 있고⁷⁶⁾, 가정 경제의 열악성도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또

75) 정은영, 전계서, pp. 35~36.

76) 윤덕중, 『범죄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82), p. 77.

다른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는바⁷⁷⁾, 이들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 및 사회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못하게 이끄는 주된 요인인 것이라 하겠다.

(2) 학교적 원인

① 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가 아닌 진학을 위한 교육으로 그 내용이 구성된 우리의 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탈행위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다. 즉, 우리의 교육이 청소년들의 창조성을 개발해주고, 자율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전인교육보다도 지식 주입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교사중심의 교육으로 파행 운영되고⁷⁸⁾, 가치추구의 교육보다는 지위추구 교육으로 변질됨으로써 교육을 받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주의, 요령주의 등의 의식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이기주의 성향을 배우게 되어 중국에는 청소년 문제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학교 교육은 실생활과 괴리된 지식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창조력을 둔화시키며,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탐구적 학습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리적 무능한 인간을 양성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⁷⁹⁾

77) 총회 남선교회 지도위원회, 전계서, p. 434.

78) 이재창,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제 17집」(서울 :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1987), p. 56.

79) 이은숙, 「교육 운동론」(서울 : 아침, 1985), p.150.

그리고 학교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참다운 인간 관계를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는 거리감이 존재하여 신뢰감 형성이 어렵게 되었고 청소년 문제의 원인까지 제공하였다는 것이다.⁸⁰⁾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발산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교육 현실은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적위주의 평가로 인하여 청소년의 심신개발 또는 정서함양을 위한 특별활동, 과외활동, 그리고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학교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점점 더 비인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⁸¹⁾

(3) 사회·문화적 원인

① 사회환경의 악화

현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의 경향이 더할수록 사회의 가치관은 혼란의 양상을 거듭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청소년 비행이 증가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프랑스의 사회학자 겸 범죄학자인 타르고는 생물학적 자연 과학적 원인이 아닌 사회적 조건만이 범죄의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⁸²⁾ 사회적 조건 중에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주된 것은 매스컴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매스컴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렇듯 청소년 문제는 (1)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대가족 제도의 붕괴

80) 정태기, 『한국교회와 청소년 프로그램』 한국의 청소년상, (서울 : Y.M.C.A. 1985), p.34.

81) 이재창, 상계서, p.56.

82) 안재정, 『학교 폭력과 교사의 역할』 (서울:한국 청소년 선교회, 1983), p.380.

와 핵가족화의 급속한 이행, (2)입시위주로 빚어진 정서교육의 부재, (3) 사회 전체에 팽배한 향락적 퇴폐풍조, (4)빈부 격차로 심화된 계층간의 갈등, (5)매스컴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소년 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사회화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사회의 각 분야는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인 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사회 교육의 하나인 기독교 종교 교육도 현재까지의 순기능을 되살려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인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Ⅲ. 研究의 方法

기독교 청소년의 생활문제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실태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1. 文獻 研究

본 연구 주제에 대한 관련 참고문헌과 연구 자료들을 통하여 청소년 교육의 이해,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의 가치관, 청소년의 문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다.

2. 實態 調査 研究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10개 교회 중,고등학생들을 임의로 표집하여 실시 하였으며, 질문지는 360부를 배부하여 340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300부를 분석자료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에 사용된 대상의 특성과 표집수는 <표1> 과 같다.

<표3-1> 연구 대상의 특성과 표집수

구 분		빈 도	구 성 비 (%)
소속 교파	장 로 교	161	53.7
	감 리 교	65	21.7
	침 례 교	74	24.6
계		3 0 0	1 0 0
소재 위치	양 천 구	123	41
	강 서 구	65	21.7
	강 남 구	62	20.7
	서 초 구	50	16.6
계		3 0 0	1 0 0
성 별	남	126	42
	여	174	58
계		3 0 0	1 0 0

2) 測定 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청소년 문제의 실태 조사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직접 제작 사용 하였다.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의 이성 문제에 대한 실태
- ② 청소년의 개인 생활 문제에 관한 실태
- ③ 청소년의 신앙 생활에 대한 실태
- ④ 청소년의 학교 생활 문제에 관한 실태
- ⑤ 청소년의 친구 문제에 대한 실태
- ⑥ 청소년의 가정과 부모 문제에 관한 실태
- ⑦ 청소년의 진로 문제에 대한 실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해 회수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백분율, χ^2 검증을 실시 하였다.

IV. 結果 와 解釋

본 연구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 중·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문제, 둘째, 중·고등학생들의 학년별 문제, 셋째, 중·고등학생들의 출생 순위별 문제, 넷째, 부모의 학력별 문제를 배경 변인에 따라 문항 별 차이 검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4-1) 제일 고민하는 문제

() %

배경변인		이성문제	개인생활 문제	신앙문제	학교생활 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진로문제	기타	계
성 별	남	57(20.43)	46(16.49)	26(9.32)	52(18.64)	27(9.68)	3(1.08)	56(20.07)	12(4.30)	279(35.59)
	여	78(15.45)	99(19.60)	63(12.48)	54(10.69)	57(11.29)	27(5.35)	126(24.95)	1(0.20)	505(64.41)
계		135(17.22)	145(18.49)	89(11.35)	106(13.52)	84(10.71)	30(3.83)	182(23.21)	13(1.66)	784(100.00)
$\chi^2=42.595$ df =7. p<0.001.										
학 년	중1	26(23.01)	20(17.70)	4(3.54)	20(17.70)	27(23.89)	5(4.42)	7(6.19)	4(3.54)	113(14.47)
	중2	38(23.46)	23(14.20)	11(6.79)	29(17.90)	22(13.58)	7(4.32)	27(16.67)	5(3.09)	162(20.74)
	중3	12(8.51)	38(26.95)	11(7.80)	20(14.18)	8(5.67)	6(4.26)	44(31.21)	2(1.42)	141(18.05)
	고1	29(19.86)	26(17.81)	23(15.75)	19(13.01)	3(2.05)	5(3.42)	40(27.40)	1(0.68)	146(18.69)
	고2	12(11.11)	22(20.37)	9(8.33)	11(10.19)	15(13.89)	7(6.48)	31(28.70)	1(0.93)	108(13.83)
	고3	18(16.22)	14(12.61)	31(27.93)	6(5.41)	9(8.11)	0(0.00)	33(29.73)	0(0.00)	111(14.21)
	계	135(17.29)	143(18.31)	89(11.40)	105(13.44)	84(10.76)	30(3.84)	182(23.30)	13(1.66)	781(100.00)
$\chi^2=149.484$ df =35. p<0.001.										
출 생 순 위	첫째	57(17.59)	59(18.21)	38(11.73)	34(10.49)	312(9.57)	11(3.40)	84(25.93)	10(3.09)	324(41.75)
	둘째	48(19.28)	63(25.30)	23(9.24)	35(14.06)	23(9.24)	8(3.21)	47(18.88)	2(0.80)	249(32.09)
	셋째	18(16.67)	10(9.26)	14(12.96)	19(17.59)	14(12.96)	3(2.78)	29(26.85)	1(0.93)	108(13.92)
	셋째 이상	4(10.81)	8(21.62)	6(16.22)	2(5.41)	3(8.11)	4(10.81)	12(27.03)	0(0.00)	37(4.77)
	독자	8(13.79)	5(8.62)	6(10.34)	14(24.14)	11(18.97)	4(6.90)	10(17.24)	0(0.00)	58(7.47)
	계	135(17.40)	145(14.69)	87(11.21)	104(13.40)	82(10.57)	30(3.87)	180(23.20)	13(1.68)	776(100.00)
$\chi^2=52.522$ df =28. p<0.01.										
부 모 님 의 학 력	중졸 이하	8(25.00)	5(15.63)	3(9.38)	7(21.88)	4(12.50)	2(6.25)	3(9.38)	0(0.00)	32(4.20)
	중졸	12(19.67)	7(11.48)	10(16.39)	10(16.39)	5(8.20)	1(1.64)	15(24.59)	1(1.64)	61(8.02)
	고졸	65(16.80)	73(18.86)	49(12.66)	48(12.40)	43(11.11)	15(3.88)	90(23.26)	4(1.03)	387(50.85)
	대졸 이상	42(14.95)	52(18.52)	29(9.61)	37(13.17)	31(11.03)	12(4.27)	72(25.62)	8(2.85)	281(36.3)
계		127(16.69)	137(18.00)	89(11.70)	102(13.40)	83(10.91)	30(3.94)	180(23.65)	13(1.71)	761(100.00)
$\chi^2=17.799$ df =21. p<0.05.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p<.001$ 수준, 학년별 $p<.001$ 수준, 출생순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이성문제(20.43%)와 진로문제(20.07%), 여학생의 경우 진로문제(20.95%)와 개인 생활문제(19.6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이성문제의 경우 중1,2학년이 이성교제로 제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이성문제나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은 출생 순위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장 큰 고민 문제는 남학생의 경우 이성 문제 (20.43%)와 진로 문제 (20.07%)가 다른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진로 문제(20.95%)와 개인 생활 문제(19.6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문제인 것은 일류대학을 나와야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좋은 성적으로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4-2) 이성교제의 유무

() %

배경변인		있다	없다	전예사귀었다	계
성별	남	20(18.52)	74(68.52)	14(12.96)	108(36.99)
	여	31(16.85)	108(58.70)	45(24.46)	184(63.01)
계		51(17.47)	182(62.33)	59(20.21)	292(100.00)
$\chi^2=5.612$ df =2. p>0.05.					
학년	중1	9(20.45)	27(61.36)	8(18.18)	44(15.21)
	중2	5(7.94)	48(76.19)	10(15.87)	63(21.65)
	중3	9(16.67)	37(68.52)	8(14.81)	54(18.56)
	고1	10(19.61)	28(58.90)	13(25.49)	51(17.53)
	고2	6(15.38)	23(58.97)	10(25.64)	39(13.40)
	고3	12(30.33)	19(47.50)	9(22.50)	40(13.75)
계		51(17.53)	182(62.54)	58(19.93)	291(100.00)
$\chi^2=14.379$ df =10. p>0.05.					
출생 순위	첫째	27(22.50)	71(59.17)	22(18.33)	120(41.67)
	둘째	11(11.96)	62(67.39)	19(20.65)	92(31.94)
	셋째	6(14.63)	24(58.54)	11(26.83)	41(14.24)
	셋째이상	2(15.38)	8(61.54)	3(23.08)	13(4.51)
	독자	4(18.18)	14(63.64)	4(18.18)	22(7.64)
계		50(17.36)	179(62.15)	59(20.49)	288(100.00)
$\chi^2=5.437$ df =8.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이하	3(21.43)	7(50.00)	4(28.57)	14(4.91)
	중졸	3(13.64)	11(50.00)	8(36.36)	22(7.72)
	고졸	29(20.28)	89(62.24)	25(17.48)	143(50.18)
	대졸이상	15(14.15)	71(66.98)	20(18.87)	106(37.19)
계		50(17.54)	178(62.46)	57(20.00)	285(100.00)
$\chi^2=6.841$ df =6. p>0.05.					

이성 교제의 유무에 관해 질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68.52%와 여학생의 58.70%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이성교제를 고등학생보다 더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이성교제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

() %

배경 변인		마음에 드는 이성 을 사귀고 싶어서	친구와의 삼각관계	헤어진 이성을 못 잊어서	순결을 잃어서	사랑할수 없는 대상을 사랑함	심한 자위행위	기타	계
성별	남	102(57.95)	15(8.52)	19(10.80)	12(6.82)	8(1.57)	3(1.70)	17(9.66)	176(34.51)
	여	167(50.00)	41(12.28)	35(10.48)	7(2.10)	40(11.98)	1(0.30)	43(12.87)	334(65.49)
계		269(52.75)	56(10.98)	54(10.59)	19(3.73)	48(9.41)	4(0.78)	60(11.70)	510(100.00)
$\chi^2=20.448$ df =6. p<0.01.									
학년	중1	46(55.42)	9(10.84)	10(12.05)	4(4.82)	5(6.02)	1(1.20)	8(9.64)	83(16.37)
	중2	60(51.28)	17(14.53)	13(11.11)	7(5.98)	10(8.55)	1(0.85)	9(7.69)	117(23.08)
	중3	38(46.91)	17(14.53)	13(11.11)	7(5.98)	5(6.17)	1(1.23)	17(20.99)	81(15.98)
	고1	45(50.56)	10(11.24)	7(7.87)	2(2.25)	11(12.36)	0(0.000)	14(15.73)	89(17.55)
	고2	40(66.67)	6(10.00)	3(5.00)	2(3.33)	7(11.67)	0(0.000)	2(3.33)	60(11.83)
	고3	38(49.45)	7(9.09)	12(15.58)	0(0.000)	9(11.69)	1(1.30)	10(12.99)	77(15.19)
계		267(52.66)	56(11.05)	54(10.65)	19(3.75)	47(9.27)	4(0.79)	60(11.83)	507(100.00)
$\chi^2=33.252$ df =30. p>0.05..									
출생 순위	첫째	92(44.44)	31(14.98)	24(11.59)	10(4.83)	14(6.76)	2(0.97)	34(16.43)	207(41.15)
	둘째	89(54.27)	17(10.37)	15(9.15)	7(4.27)	18(10.98)	1(0.61)	17(10.37)	164(32.60)
	셋째	48(68.57)	5(7.14)	6(8.57)	0(0.000)	8(11.43)	0(0.000)	3(4.29)	70(13.92)
	셋째이상	8(44.44)	0(0.000)	3(16.67)	0(0.000)	1(5.56)	0(0.000)	6(33.33)	18(3.58)
	독자	26(59.09)	3(6.82)	6(13.64)	2(4.55)	6(13.64)	1(2.27)	0(0.000)	44(8.75)
계		263(52.29)	56(11.13)	54(10.74)	19(3.78)	47(9.34)	4(0.80)	60(11.93)	503(100.00)
$\chi^2=44.058$ df =24. p<0.001									
부 모 님 의 학 력	중졸이하	16(72.73)	2(9.09)	3(13.64)	0(0.000)	1(4.55)	0(0.000)	0(0.000)	22(4.42)
	중졸	22(47.83)	5(10.87)	8(17.39)	2(4.35)	4(8.70)	1(2.17)	4(8.70)	46(9.24)
	고졸	134(54.69)	32(13.06)	20(8.16)	5(2.04)	21(8.57)	0(0.000)	33(13.47)	245(49.20)
	대졸이상	93(50.27)	17(9.17)	23(12.43)	10(5.41)	19(10.27)	3(1.62)	20(10.81)	185(37.15)
계		265(53.21)	56(11.24)	54(10.84)	17(3.41)	45(9.04)	4(0.80)	57(11.45)	498(100.00)
$\chi^2=21.534$ df =18. p>0.05.									

이성교제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학생의 성별, 출생 순위별에 따라서 각각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57.95%가, 여학생의 50.00%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귀고 싶다고 했으며, 출생순위별로 살펴보면 독자나 셋째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귀고 싶다고 대답했

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중 대부분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과 호기심이 매우 크며, 그에따른 그들의 이상형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4) 순결을 잃게된 대상

() %

배경변인		남자(여자) 친구	사촌,삼촌	친오빠(누나)	아는오빠 (누나)	주위의 유부남	아버지 (어머니)	기타	계
성별	남	5(22.73)	3(13.64)	0(0.00)	1(4.55)	0(0.00)	0(0.00)	13(59.09)	22(38.60)
	여	4(11.43)	2(5.71)	1(2.86)	5(14.29)	3(8.57)	1(2.86)	19(54.29)	35(61.40)
	계	9(15.79)	5(8.77)	1(1.75)	6(10.53)	3(5.26)	1(1.75)	32(56.14)	57(100.00)
$\chi^2=6.475$, df =6, p>0.05.									
학년	중1	2(15.38)	1(7.69)	0(0.00)	3(23.08)	2(15.38)	0(0.00)	5(38.46)	13(22.81)
	중2	2(18.18)	3(27.27)	0(0.00)	1(9.09)	0(0.00)	1(9.09)	4(36.36)	11(19.30)
	중3	3(33.33)	0(0.00)	0(0.00)	1(11.11)	0(0.00)	0(0.00)	5(55.56)	9(15.79)
	고1	1(7.69)	0(0.00)	1(7.69)	1(7.69)	1(7.69)	0(0.00)	9(69.23)	13(22.81)
	고2	1(11.11)	1(11.11)	0(0.00)	0(0.00)	0(0.00)	0(0.00)	7(77.78)	9(15.79)
	고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100.00)	2(3.51)
	계	9(15.79)	5(8.77)	1(1.75)	6(10.53)	3(5.26)	1(1.75)	32(56.14)	57(100.00)
$\chi^2=27.671$, df =30, p>0.05.									
출생 순위	첫째	3(12.00)	1(4.00)	1(4.00)	2(8.00)	0(0.00)	1(4.00)	17(68.00)	25(43.86)
	둘째	4(22.22)	1(5.56)	0(0.00)	2(11.11)	3(16.67)	0(0.00)	8(44.44)	18(31.58)
	셋째	0(0.00)	0(0.00)	0(0.00)	1(33.33)	0(0.00)	0(0.00)	2(66.67)	3(5.26)
	셋째이상	0(0.00)	1(33.33)	0(0.00)	1(33.33)	0(0.00)	0(0.00)	1(33.33)	3(5.26)
	독자	2(25.00)	2(25.00)	0(0.00)	0(0.00)	0(0.00)	0(0.00)	4(50.00)	8(14.04)
계		9(15.79)	5(8.77)	1(1.75)	6(10.53)	3(5.26)	1(1.75)	32(56.14)	57(100.00)
$\chi^2=22.146$, df =24,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이하	1(5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50.00)	2(3.77)
	중졸	1(33.33)	0(0.00)	0(0.00)	0(0.00)	0(0.00)	0(0.00)	2(66.67)	3(5.66)
	고졸	1(4.35)	3(13.04)	0(0.00)	4(17.39)	1(4.35)	0(0.00)	14(60.87)	23(43.40)
	대졸이상	4(16.00)	2(8.00)	1(4.00)	2(8.00)	2(8.00)	1(4.00)	13(52.00)	25(47.17)
계		7(13.21)	5(9.43)	1(1.89)	6(11.32)	3(5.66)	1(1.89)	30(56.60)	53(100.00)
$\chi^2=9.958$, df =18, p>0.05.									

순결을 잃게 된 대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결을 잃은 대상에 대해 기타(59.09%)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에 대해 숨기고 싶은 마음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의외로 그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 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한다.

(표4-5) 이성문제에 관한 상담 대상

() %

배경변인		친구	선생님	부모님	친오빠,누나, 언니,형	교회목사, 전도사	청소년전문 상담실	계
성별	남	54(72.00)	3(4.00)	7(9.33)	6(8.00)	3(4.00)	2(2.67)	75(32.33)
	여	119(75.80)	3(1.91)	13(8.28)	15(9.55)	2(1.27)	5(3.18)	157(67.67)
	계	173(74.57)	6(2.59)	20(8.62)	21(9.05)	5(2.16)	7(3.02)	232(100.00)
$\chi^2=2.951$ df =5. p>0.05								
학년	중1	21(67.74)	0(0.00)	5(16.13)	4(12.90)	0(0.00)	1(3.23)	31(13.42)
	중2	29(65.91)	2(4.55)	5(11.36)	4(9.09)	2(4.55)	2(4.55)	44(19.05)
	중3	29(70.73)	4(9.76)	2(4.88)	3(7.32)	2(4.88)	1(2.44)	41(17.75)
	고1	3(72.09)	0(0.00)	7(16.28)	4(9.30)	0(0.00)	1(2.33)	43(18.61)
	고2	28(84.45)	0(0.00)	1(3.03)	2(6.06)	1(3.03)	1(3.03)	33(14.29)
	고3	35(89.74)	0(0.00)	0(0.00)	4(10.26)	0(0.00)	0(0.00)	39(16.88)
	계	173(74.89)	6(2.60)	20(8.66)	21(9.09)	5(2.16)	6(2.60)	231(100.00)
$\chi^2=33.332$ df =25. p>0.05								
출생 순위	첫째	75(78.95)	4(4.21)	9(9.47)	5(5.26)	1(1.05)	1(1.05)	95(41.48)
	둘째	52(73.24)	1(1.41)	5(7.04)	7(9.86)	2(2.82)	4(5.63)	71(31.00)
	셋째	25(71.43)	0(0.00)	3(8.57)	6(17.14)	0(0.00)	1(2.86)	35(15.28)
	셋째이상	7(63.64)	1(9.09)	1(9.09)	1(9.09)	1(9.09)	0(0.00)	11(4.80)
	독자	12(70.59)	0(0.00)	1(5.88)	2(11.76)	1(5.88)	1(5.88)	17(7.42)
	계	171(74.67)	6(2.62)	19(8.30)	21(9.17)	5(2.18)	7(3.06)	229(100.00)
$\chi^2=18.043$ df =20.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이하	11(4.62)	1(7.69)	0(0.00)	1(7.69)	0(0.00)	0(0.00)	13(5.75)
	중졸	14(77.78)	1(5.56)	1(5.56)	1(5.56)	0(0.00)	1(5.56)	18(7.96)
	고졸	91(77.12)	4(3.39)	6(5.08)	13(11.02)	2(1.69)	2(1.69)	118(52.21)
	대졸이상	52(67.53)	0(0.00)	13(16.88)	6(7.79)	2(2.60)	4(5.19)	77(34.07)
	계	168(74.34)	6(2.65)	20(8.85)	21(9.29)	4(1.77)	7(3.10)	226(100.00)
$\chi^2=18.107$ df =15. p>0.05								

이성 문제에 대한 상담 대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친구(72.00%)가 상담 대상으로, 여학생의 경우도 친구(71.00%)가 상담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생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를 이성문제의 상담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이성문제 해결시 신앙생활의 도움여부

() %

배경변인		매우 도움	도움	그저	별로	전혀	계
성별	남	9(10.23)	23(26.14)	31(35.23)	9(10.23)	16(18.18)	88(34.11)
	여	19(11.18)	53(31.18)	54(31.76)	25(14.71)	19(11.18)	170(65.89)
계		28(10.85)	76(29.46)	85(32.95)	34(13.18)	35(13.57)	258(100.00)
$\chi^2=3.739$ df =4 p>0.05							
학년	중1	5(13.16)	9(23.68)	15(39.47)	6(15.79)	3(7.89)	38(14.79)
	중2	4(7.55)	14(26.42)	12(22.64)	4(7.55)	19(35.85)	53(20.62)
	중3	3(6.82)	13(29.55)	18(40.91)	6(13.64)	4(9.09)	44(17.12)
	고1	7(14.29)	13(26.53)	18(36.73)	6(12.24)	5(10.20)	49(19.07)
	고2	4(11.41)	9(25.71)	7(31.43)	8(21.86)	3(8.57)	35(13.62)
	고3	4(10.53)	18(47.57)	11(29.95)	4(10.53)	1(2.63)	38(14.79)
계		27(10.51)	76(29.57)	85(33.07)	34(13.23)	35(13.62)	257(100.00)
$\chi^2=39.875$ df =20. p<0.01							
출생 순위	첫째	11(10.68)	31(30.10)	35(33.98)	11(10.68)	15(14.56)	103(40.39)
	둘째	10(12.35)	21(25.93)	25(30.86)	15(18.52)	10(12.35)	81(31.76)
	셋째	3(7.89)	14(36.84)	11(28.95)	6(15.79)	4(10.53)	38(14.90)
	셋째이상	1(9.09)	5(45.45)	1(9.09)	1(9.09)	3(27.27)	11(4.31)
	독자	2(9.09)	5(22.73)	11(50.00)	1(4.55)	3(13.64)	22(8.63)
계		27(10.59)	76(29.80)	83(32.55)	34(13.33)	35(13.75)	255(100.00)
$\chi^2=12.781$ df =16.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이하	3(23.08)	5(38.46)	1(7.69)	3(23.08)	1(7.69)	13(5.20)
	중졸	2(10.53)	5(26.32)	5(26.32)	4(21.05)	3(15.79)	19(7.60)
	고졸	10(7.75)	43(33.33)	46(35.66)	20(15.50)	10(7.75)	129(51.60)
	대졸이상	11(12.36)	22(24.72)	30(33.71)	5(5.62)	21(23.60)	89(35.60)
계		26(10.40)	75(30.00)	82(32.80)	32(12.80)	35(14.00)	250(100.00)
$\chi^2=24.265$ df =12. p<0.05							

이성 문제 해결시 신앙 생활의 도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p<.01$ 수준, 부모님의 학력별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으며,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이성 교제시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는 데 그것은 고학년이 될수록 그 충동은 더 충동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 신앙은 청소년의 신체적 접촉과 성충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청소년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4-7) 자신의 개인 생활 중 제일 고민하는문제 () %

배경변인		외모의 열등감	학교성적	고칠수없는 습관	나약한 의지	죽음의 공포	고독,외로움	괴팍한 성격	미래에대한 자신감결여	기타	계
성별	남	36(12.24)	119(40.48)	31(10.54)	51(17.35)	6(2.04)	16(5.44)	6(2.04)	21(7.14)	8(2.72)	294(35.77)
	여	76(14.39)	236(44.70)	25(4.73)	65(12.31)	11(2.08)	47(8.90)	9(1.70)	46(8.71)	13(2.46)	528(64.23)
	계	112(13.63)	355(43.19)	56(6.81)	116(14.11)	17(2.07)	43(7.66)	15(1.82)	67(8.15)	21(2.55)	822(100.00)
$\chi^2=17.856$ df =8. p<0.05											
학년	중1	20(17.09)	65(55.56)	4(3.42)	5(4.27)	3(2.53)	5(4.27)	2(1.71)	7(5.98)	6(5.13)	117(14.29)
	중2	25(14.37)	76(43.68)	23(13.22)	16(9.20)	7(4.02)	12(6.90)	2(1.15)	9(5.17)	4(2.30)	174(21.25)
	중3	26(17.11)	56(36.84)	9(5.92)	21(13.82)	4(2.63)	13(8.55)	4(2.63)	13(8.55)	6(3.95)	152(18.56)
	고1	27(17.76)	65(42.76)	7(4.61)	18(11.84)	3(1.97)	12(7.89)	1(1.32)	15(9.87)	3(1.97)	152(18.56)
	고2	4(3.85)	53(50.96)	8(7.69)	17(16.32)	0(0.00)	7(6.73)	2(1.92)	11(10.58)	2(1.92)	104(12.70)
	고3	8(6.67)	39(32.50)	5(4.17)	39(32.50)	0(0.00)	14(11.67)	3(2.50)	12(10.00)	0(0.00)	120(14.65)
	계	110(13.43)	354(43.22)	56(6.84)	116(14.16)	17(2.08)	63(7.69)	15(1.83)	67(8.18)	21(2.56)	819(100.00)
$\chi^2=1008.272$ df =40. p<0.001.											
출생순위	첫째	45(13.51)	137(41.14)	22(6.61)	55(16.52)	2(0.60)	26(7.81)	11(3.30)	26(7.81)	9(2.70)	333(40.96)
	둘째	41(15.95)	113(43.97)	18(7.00)	31(11.08)	6(2.33)	20(7.78)	2(0.78)	17(6.61)	9(3.50)	257(31.61)
	셋째	14(12.07)	56(48.28)	4(3.45)	18(15.52)	4(3.45)	6(5.17)	0(0.00)	12(10.33)	2(1.72)	76(14.27)
	셋째이상	2(5.00)	16(40.00)	3(7.50)	7(17.50)	1(2.50)	4(10.00)	2(5.00)	5(12.50)	0(0.00)	40(4.92)
	독자	10(14.93)	27(40.30)	7(10.45)	5(7.46)	4(5.97)	7(10.45)	0(0.00)	6(8.96)	1(1.49)	67(8.24)
	계	112(13.78)	349(42.93)	54(6.64)	116(14.27)	17(2.09)	63(7.75)	15(1.85)	66(8.12)	21(2.58)	813(100.00)
$\chi^2=40.039$ df =32.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6(15.38)	14(35.90)	3(7.69)	4(10.26)	0(0.00)	4(10.26)	1(2.56)	4(10.26)	3(7.69)	39(4.89)
	중졸	4(6.35)	24(38.10)	4(6.35)	17(26.98)	1(1.59)	6(9.52)	3(4.76)	4(6.35)	0(0.00)	63(7.90)
	고졸	50(12.32)	177(43.60)	25(6.16)	65(16.01)	7(1.72)	29(7.14)	5(1.23)	38(9.36)	10(2.46)	406(50.94)
	대졸이상	48(16.61)	128(44.29)	21(7.27)	26(9.00)	9(3.11)	24(8.30)	5(1.73)	20(6.92)	8(2.77)	289(36.26)
	계	108(13.55)	343(43.04)	53(6.65)	112(14.05)	17(2.13)	63(7.90)	14(1.76)	66(8.28)	21(2.63)	797(100)
$\chi^2=35.159$ df =24. p>0.05											

자신의 개인 생활 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출생순위 및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p<.05 수준, 학년 p<.001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40.48%)과 나약한 의지(17.35%)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44.70%)과 외모의 열등감

(14.39%)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대부분 학교성적으로 답했으나 고 3의 경우 나약한 의지가 들어간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진로 문제와 동일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표4-8) 자신의 신체중 불만인 부분 () %

배경변인		눈	코	입	머리	턱	머리카락	목	가슴	허리	다리	계
성 별	남	16(21.92)	26(35.62)	2(2.74)	4(5.48)	3(4.11)	7(9.59)	1(1.37)	3(4.11)	5(6.85)	6(8.22)	73(32.30)
	여	33(21.57)	39(25.49)	10(6.54)	7(4.58)	4(2.61)	4(2.61)	1(0.65)	9(5.88)	11(7.19)	35(22.88)	153(67.70)
계		49(21.68)	65(28.76)	12(5.31)	11(4.87)	7(3.10)	11(4.87)	2(0.88)	12(5.31)	16(7.08)	41(18.14)	226(100.00)
$\chi^2=14.924$ df=9. p>0.05												
학 년	중1	7(24.14)	7(24.14)	3(10.04)	1(3.45)	2(6.90)	3(10.33)	0(0.00)	1(3.45)	1(3.45)	4(13.79)	29(12.83)
	중2	9(17.31)	16(30.77)	2(3.85)	4(7.69)	0(0.00)	2(3.85)	0(0.00)	2(3.85)	9(17.31)	8(15.38)	52(23.01)
	중3	9(21.95)	12(29.27)	2(4.88)	1(2.44)	2(4.88)	3(7.32)	0(0.00)	4(9.76)	1(2.44)	7(17.07)	41(18.14)
	고1	6(15.00)	14(35.00)	3(7.50)	3(7.50)	1(2.50)	1(2.50)	0(0.00)	2(5.00)	2(5.00)	8(20.00)	40(17.70)
	고2	8(23.53)	11(32.35)	1(2.94)	0(0.00)	0(0.00)	2(5.88)	2(5.88)	0(0.00)	1(2.94)	9(26.47)	34(15.04)
	고3	10(33.33)	5(16.67)	1(3.33)	2(6.67)	2(6.67)	0(0.00)	0(0.00)	3(10.00)	2(6.67)	5(16.67)	30(13.27)
	계	49(21.68)	65(28.76)	12(5.31)	11(4.87)	7(3.10)	11(4.87)	2(0.88)	12(5.31)	16(7.08)	41(18.14)	226(100.00)
$\chi^2=51.143$ df=45. p>0.05												
출 생 순 위	첫째	23(24.21)	25(26.32)	4(4.21)	7(7.37)	2(2.11)	5(5.26)	0(0.00)	2(2.11)	7(7.37)	20(21.05)	95(42.60)
	둘째	11(15.94)	24(34.78)	3(4.35)	2(2.90)	2(2.90)	6(8.70)	1(1.45)	6(8.70)	5(7.25)	9(13.04)	69(30.94)
	셋째	6(20.00)	6(20.00)	5(16.67)	0(0.00)	0(0.00)	0(0.00)	0(0.00)	2(6.67)	2(6.67)	9(30.00)	30(13.45)
	셋째 이상	4(36.36)	4(36.36)	0(0.00)	1(9.09)	1(9.09)	0(0.00)	0(0.00)	0(0.00)	0(0.00)	1(9.09)	11(4.93)
	독자	5(11.11)	6(33.33)	0(0.00)	1(5.56)	2(11.11)	0(0.00)	1(5.56)	2(11.11)	2(11.11)	2(11.11)	18(8.07)
계		46(20.63)	65(29.15)	12(5.38)	11(4.93)	7(3.14)	11(4.93)	2(0.90)	12(5.38)	16(7.17)	41(18.39)	223(100.00)
$\chi^2=46.102$ df=36. p>0.05												
부 모 님 의 학 력	중졸 이하	2(20.00)	3(30.00)	1(10.00)	0(0.00)	1(10.00)	0(0.00)	0(0.00)	1(10.00)	0(0.00)	2(20.00)	10(4.52)
	중졸	4(30.77)	5(38.46)	0(0.00)	0(0.00)	0(0.00)	0(0.00)	0(0.00)	1(7.69)	2(15.38)	1(7.69)	13(5.88)
	고졸	27(23.28)	29(25.00)	9(7.76)	5(4.31)	4(3.45)	8(6.90)	1(0.86)	5(4.31)	6(5.17)	22(18.97)	116(52.49)
	대졸 이상	14(17.07)	26(31.71)	2(2.44)	6(7.32)	2(2.44)	3(3.66)	1(1.22)	5(6.10)	8(9.76)	15(18.29)	82(37.10)
계		47(21.27)	63(28.51)	12(5.43)	11(4.98)	7(3.17)	11(4.98)	2(0.90)	12(5.43)	16(7.24)	40(18.10)	221(100.00)
$\chi^2=18.112$ df=27. p>0.05												

자신의 신체 중 제일 불만인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코(35.62%)와 눈(21.92%)으로 나타났고, 반면 여학생의 경우 코(25.49%)와 다리(22.88%)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남학생들은 주로 얼굴에 관심이 많고, 여학생들은 얼굴과 아울러 균형잡힌 몸

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9) 성형수술 희망 여부

() %

배경변인		고치고 싶다	그대로가 좋다	망설이고 있다	계
성별	남	17(15.89)	88(82.24)	2(1.87)	107(37.41)
	여	31(17.32)	131(73.18)	17(9.50)	179(62.59)
계		48(15.78)	219(76.57)	19(6.64)	286(100.00)
		$\chi^2=6.665$, df =2, p<0.05			
학년	중1	6(14.29)	35(83.33)	1(2.38)	42(14.74)
	중2	12(20.34)	44(74.58)	3(5.08)	59(20.70)
	중3	7(13.46)	39(75.00)	6(11.54)	52(18.25)
	고1	7(13.73)	42(82.35)	2(3.92)	51(17.89)
	고2	7(17.50)	30(75.00)	3(7.50)	40(14.04)
	고3	8(19.51)	29(70.73)	4(9.76)	41(14.30)
계		47(16.49)	219(76.84)	19(6.67)	285(100.00)
		$\chi^2=6.577$, df =10, p>0.05			
출생순위	첫째	19(16.24)	91(77.78)	7(5.98)	117(41.49)
	둘째	13(14.44)	73(81.11)	4(4.44)	90(31.91)
	셋째	8(19.51)	32(78.05)	1(2.44)	41(14.54)
	셋째이상	4(33.33)	6(50.00)	2(16.67)	12(4.26)
	독자	4(18.18)	14(63.64)	4(18.18)	22(7.80)
계		48(17.02)	216(76.60)	18(6.38)	282(100.00)
		$\chi^2=12.643$, df =8, p>0.05			
부모의 학력	중졸이하	2(14.29)	12(85.71)	0(0.00)	14(5.04)
	중졸	3(14.29)	17(80.95)	1(4.76)	21(7.55)
	고졸	23(16.08)	112(78.32)	8(5.59)	143(51.44)
	대졸이상	20(20.00)	72(72.00)	8(8.00)	100(35.97)
계		48(17.27)	213(76.62)	17(6.12)	278(100.00)
		$\chi^2=26.827$, df =6, p>0.05			

성형수술 희망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82.24%가 그대로가 좋다고 했고, 반면 여학생의 경우 73.18%가 그대로가 좋다고 했다. 이같은 결과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

과 인격 즉, 내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10) 자신의 고칠수 없는 습관

() %

배경변인		술	담배	도박	낭비	폭력	기타	계
성별	남	5(7.14)	9(12.86)	4(5.71)	33(47.14)	4(5.71)	15(21.43)	70(36.84)
	여	6(15.00)	4(3.33)	0(0.00)	67(55.83)	3(2.50)	40(33.33)	120(63.16)
계		11(5.79)	13(6.84)	4(2.11)	100(52.63)	7(3.68)	55(28.95)	190(100.00)
$\chi^2=17.107$, df =5, p<0.01								
학년	중1	2(7.14)	0(0.00)	0(0.00)	21(75.00)	2(7.14)	3(10.71)	28(14.74)
	중2	2(4.55)	4(9.09)	1(2.27)	22(50.00)	0(0.00)	15(34.09)	44(23.16)
	중3	2(5.88)	5(14.71)	0(0.00)	17(50.00)	1(2.94)	9(26.47)	34(17.89)
	고1	2(5.71)	0(0.00)	0(0.00)	19(54.29)	2(5.71)	12(34.29)	35(18.42)
	고2	1(4.00)	3(12.00)	2(8.00)	10(40.00)	1(4.00)	8(32.00)	25(13.16)
	고3	2(8.33)	1(4.17)	1(4.17)	11(45.83)	1(4.17)	8(33.33)	24(12.63)
계		11(5.79)	13(6.84)	4(2.11)	100(52.63)	7(3.68)	55(28.95)	190(100.00)
$\chi^2=27.224$, df =25, p>0.05								
출생순위	첫째	8(9.76)	2(2.44)	1(1.22)	39(47.56)	4(4.88)	28(34.15)	82(43.62)
	둘째	1(1.56)	6(9.38)	3(4.69)	36(56.25)	2(3.13)	16(25.00)	64(34.04)
	셋째	0(0.00)	0(0.00)	0(0.00)	13(68.42)	0(0.00)	6(31.58)	19(10.11)
	셋째이상	2(33.33)	0(0.00)	0(0.00)	1(16.67)	0(0.00)	3(50.00)	6(3.19)
	독자	0(0.00)	5(29.41)	0(0.00)	9(52.94)	1(5.88)	2(11.76)	17(9.04)
계		11(5.85)	13(6.91)	4(2.13)	98(52.13)	7(3.72)	55(29.26)	188(100.00)
$\chi^2=42.504$, df =20, p<0.01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3(37.50)	0(0.00)	1(12.50)	2(25.00)	1(12.50)	1(12.50)	8(4.32)
	중졸	1(7.69)	1(7.69)	0(0.00)	8(61.54)	0(0.00)	3(23.08)	13(7.03)
	고졸	2(2.13)	6(6.38)	0(0.00)	53(56.38)	5(5.32)	28(29.79)	94(50.81)
	대졸이상	5(7.14)	5(7.14)	3(4.29)	34(48.57)	0(0.00)	23(32.86)	70(37.84)
계		11(5.95)	12(6.49)	4(2.16)	97(52.43)	6(3.24)	55(29.73)	185(100.00)
$\chi^2=33.370$, df =15, p<0.01								

자신의 고칠 수 없는 습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낭비라고 대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 모두 p<0.0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47.14%가 낭비, 여학생은 55.83%가 낭비로 대답했으며,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셋째가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낭비가 심했다. 이같

은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시 음주, 흡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절제하고 있는 반면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과소비의 풍조가 학생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11)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의 유무

() %

배경변인		있다	없다	계
성별	남	52(49.52)	53(50.48)	105(36.71)
	여	114(62.98)	67(37.02)	181(63.29)
계		166(58.04)	120(41.96)	286(100.00)
$\chi^2=4.943$ df =1. p<0.05				
학년	중1	21(48.84)	22(51.16)	43(15.09)
	중2	29(50.00)	29(50.00)	58(20.35)
	중3	31(60.78)	20(39.22)	51(17.89)
	고1	32(61.54)	20(38.46)	52(18.25)
	고2	23(58.97)	16(14.03)	39(13.68)
	고3	30(71.42)	12(28.57)	42(14.74)
계		166(58.25)	119(41.75)	285(100.00)
$\chi^2=6.563$ df =5. p>0.05				
출생순위	첫째	72(61.02)	46(38.98)	118(41.84)
	둘째	51(55.43)	41(44.57)	92(32.62)
	셋째	26(61.90)	16(38.10)	42(14.89)
	셋째이상	7(70.00)	3(30.00)	10(3.55)
	독자	8(40.00)	12(60.00)	20(7.09)
계		164(58.16)	118(41.84)	285(100.00)
$\chi^2=4.205$ df =4.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8(61.54)	5(38.46)	13(4.68)
	중졸	15(71.43)	6(28.57)	21(7.55)
	고졸	86(60.14)	57(39.86)	143(51.44)
	대졸이상	54(53.47)	47(46.53)	101(36.33)
계		163(58.63)	115(41.37)	278(100.00)
$\chi^2=2.709$ df =3. p>0.05				

자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 $p < 0.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49.52%와 여학생의 경우 62.9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특이한 것은 출생순위의 경우 셋째이상이 70%정도 자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반면 독자의 경우에는 40%정도만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진로와 학교성적 입시위주의 교육속에서 청소년들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12) 자살 고려 이유

() %

배경변인		가정불화	성적부진	학교폭력	인격 모독	자신에대한회의감	부모의 부정,구타	기타	계
성 별	남	11(16.67)	19(28.79)	0(0.00)	4(6.06)	18(27.27)	4(6.06)	10(15.15)	66(33.50)
	여	18(13.74)	31(23.66)	4(3.05)	7(5.34)	52(39.69)	10(7.63)	9(6.87)	131(66.50)
계		29(14.72)	50(25.38)	4(2.03)	11(5.58)	70(35.53)	14(7.11)	19(9.64)	197(100.00)
$\chi^2=7.944$, df =6, $p>0.05$									
학 년	중1	2(7.14)	10(35.71)	0(0.00)	2(7.14)	4(14.29)	4(14.29)	6(21.43)	25(14.29)
	중2	8(19.05)	13(30.95)	1(2.38)	3(7.14)	8(19.05)	2(4.76)	7(16.67)	42(21.43)
	중3	7(22.58)	8(25.81)	0(0.00)	2(6.45)	10(32.26)	3(9.68)	1(3.23)	31(15.82)
	고1	6(17.14)	8(22.86)	1(2.86)	2(5.71)	12(34.29)	4(11.43)	2(5.71)	35(17.86)
	고2	5(7.14)	4(14.29)	0(0.00)	2(7.14)	17(60.71)	0(0.00)	3(10.71)	28(14.29)
	고3	4(12.50)	6(18.75)	2(6.25)	0(0.00)	19(59.38)	1(3.13)	0(0.00)	32(16.33)
계		29(14.80)	49(25.00)	2(2.04)	11(5.61)	70(35.71)	14(7.14)	19(9.69)	196(100.00)
$\chi^2=49.187$, df =30, $p<0.05$									
출 생 순 위	첫째	15(17.24)	23(26.44)	1(1.15)	4(4.60)	27(31.03)	5(5.75)	12(13.79)	87(44.62)
	둘째	6(10.34)	16(27.59)	1(1.72)	4(6.90)	21(26.21)	5(8.62)	5(8.62)	58(29.74)
	셋째	4(14.81)	3(11.11)	0(0.00)	2(7.41)	15(55.56)	3(11.11)	0(0.00)	27(13.85)
	셋째 이상	0(0.00)	3(37.50)	1(12.50)	0(0.00)	4(50.00)	0(0.00)	0(0.00)	8(4.10)
	독자	3(20.00)	4(26.67)	1(6.67)	1(6.67)	3(20.00)	1(6.67)	2(13.33)	15(7.69)
계		28(14.36)	49(25.13)	4(2.05)	11(5.64)	70(35.90)	14(7.18)	19(9.74)	195(100.00)
$\chi^2=24.860$, df =24, $p>0.05$									
부 모 의 학 력	중졸 이하	2(22.22)	2(22.22)	0(0.00)	0(0.00)	5(55.56)	0(0.00)	0(0.00)	9(4.62)
	중졸	4(22.22)	3(16.67)	0(0.00)	0(0.00)	7(38.89)	1(5.56)	3(16.67)	18(9.23)
	고졸	16(16.84)	24(25.26)	3(3.16)	6(6.32)	33(34.74)	5(5.26)	8(8.42)	95(48.72)
	대졸 이상	7(9.59)	21(28.77)	1(1.37)	4(5.48)	25(34.25)	8(10.96)	7(9.59)	73(37.44)
계		29(14.87)	50(25.64)	4(2.05)	10(5.13)	70(35.90)	14(7.18)	18(9.23)	195(100.00)
$\chi^2=12.180$, df =18, $p>0.05$									

자살 고려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의 경우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중1,2학년은 성적부진이 가장 높은 반면 고학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대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성적으로 고민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자신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4-13) 자살문제 발생시 신앙의 도움여부

() %

배경변인		매우 도움	도움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계
성별	남	17(20.73)	32(39.02)	18(21.95)	2(2.44)	13(15.85)	82(34.60)
	여	35(22.58)	68(43.87)	30(19.35)	7(4.52)	15(9.68)	155(65.40)
계		52(21.94)	100(42.19)	48(20.25)	9(3.80)	28(11.81)	237(100)
$\chi^2 = 2.901$, df = 4, $p > 0.05$							
학년	중1	8(22.86)	11(31.43)	13(37.14)	0(0.00)	3(8.57)	35(14.83)
	중2	7(14.29)	13(26.53)	9(18.37)	2(4.08)	18(36.73)	49(20.76)
	중3	12(30.77)	16(41.03)	5(12.82)	3(7.69)	3(7.69)	39(16.53)
	고1	11(25.00)	22(50.00)	8(18.18)	1(2.27)	2(4.55)	44(18.64)
	고2	5(15.63)	16(50.00)	8(25.00)	2(6.25)	1(3.13)	32(13.56)
	고3	8(21.62)	22(59.46)	5(13.51)	1(2.70)	1(2.70)	37(15.68)
계		51(21.61)	100(42.37)	48(20.34)	9(3.81)	28(11.86)	236(100)
$\chi^2 = 55.224$, df = 20, $p < 0.001$							
출생순위	첫째	19(20.43)	41(44.09)	18(19.35)	4(4.30)	11(11.83)	93(39.91)
	둘째	19(24.36)	33(42.31)	15(19.23)	2(2.56)	9(11.54)	78(33.48)
	셋째	10(28.57)	11(31.43)	10(28.57)	1(2.86)	3(8.57)	35(15.02)
	셋째이상	1(11.11)	6(66.67)	0(0.00)	1(11.11)	1(11.11)	9(3.86)
	독자	2(11.11)	8(44.44)	4(22.22)	0(0.00)	4(22.22)	18(7.73)
계		51(21.89)	99(42.49)	47(20.17)	8(3.43)	28(12.02)	223(100)
$\chi^2 = 12.418$, df = 16, $p > 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5(45.45)	3(27.27)	1(9.09)	1(9.09)	1(9.09)	11(4.76)
	중졸	4(21.05)	11(57.89)	1(5.26)	0(0.00)	3(15.79)	19(8.23)
	고졸	23(19.17)	50(41.67)	31(25.83)	5(4.17)	11(9.17)	120(51.95)
	대졸이상	18(22.22)	34(41.98)	13(16.05)	3(3.70)	13(16.05)	81(35.06)
계		50(21.65)	98(42.42)	46(19.91)	9(3.90)	28(12.12)	231(100)
$\chi^2 = 14.060$, df = 12, $p > 0.05$							

자살문제 발생시 신앙의 도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의 경우 $p<.001$ 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살을 살인죄로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14) 진로 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

() %

배경변인		진학을 원하나 성적이 모자람	취업과 진학의 선택 갈등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기타	계
성별	남	67(66.34)	12(11.88)	11(10.89)	11(10.89)	101(37.13)
	여	101(59.06)	28(16.37)	18(10.53)	24(14.04)	17(62.87)
계		168(61.76)	40(14.71)	29(10.66)	35(12.87)	272(100.00)
$\chi^2=1.911$, df =3, $p>0.05$						
학년	중1	26(66.67)	4(10.26)	3(7.69)	6(15.38)	39(14.39)
	중2	29(50.88)	10(17.54)	9(15.79)	9(15.79)	57(21.03)
	중3	26(53.06)	14(28.57)	5(10.20)	4(8.16)	49(18.08)
	고1	37(77.08)	0(0.00)	4(8.33)	7(14.58)	48(17.71)
	고2	25(65.79)	5(13.16)	3(7.89)	5(13.16)	38(14.02)
	고3	24(60.00)	7(17.50)	5(12.50)	4(10.00)	40(14.76)
계		167(61.62)	40(14.76)	29(10.70)	35(12.92)	271(100.00)
$\chi^2=22.466$, df =15, $p>0.05$						
출생 순위	첫째	67(60.91)	16(14.55)	13(11.82)	14(12.73)	110(41.04)
	둘째	46(53.49)	14(16.28)	12(13.95)	14(16.28)	86(32.09)
	셋째	27(69.23)	4(10.26)	2(5.13)	6(15.38)	39(14.55)
	셋째이상	8(72.73)	3(27.27)	0(0.00)	0(0.00)	11(4.10)
	독자	17(77.27)	2(9.09)	2(9.09)	1(4.55)	22(8.21)
계		165(61.57)	39(14.55)	29(10.82)	35(13.06)	268(100.00)
$\chi^2=11.551$, df =12,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이하	9(75.00)	3(25.00)	0(0.00)	0(0.00)	12(4.51)
	중졸	11(52.38)	5(23.81)	1(4.76)	4(19.05)	21(7.89)
	고졸	85(61.59)	19(13.77)	14(10.14)	20(14.49)	138(51.88)
	대졸이상	59(62.11)	12(12.63)	13(13.68)	11(11.58)	95(35.71)
계		164(61.65)	39(14.66)	28(10.53)	35(13.16)	266(100.00)
$\chi^2=8.403$, df =9, $p>0.05$						

진로 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진학을 원하나 성적이 모자라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의 경우 남학생 66.34%가 진학을 원하나 성적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59.06%도 진학을 원하나 성적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성적에 따라서 진학이 결정되는 사회적 세태에 대한 갈등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표4-15) 진로 문제의 상담자 대상

() %

배경변인		교사	부모님	친구	형제,자매	선배	교회 지도자	기타	계
성별	남	24(23.08)	32(30.77)	24(23.08)	7(6.73)	7(6.73)	2(1.92)	8(7.69)	104(36.62)
	여	32(17.78)	44(24.44)	73(40.56)	7(3.89)	6(3.33)	2(1.11)	16(8.89)	180(63.38)
계		56(19.72)	76(26.76)	97(34.15)	14(4.93)	13(4.58)	4(1.41)	24(8.45)	284(100.00)
$\chi^2=10.982$, df =6, p>0.05									
학년	중1	4(10.00)	11(27.50)	14(35.00)	1(2.50)	3(7.50)	0(0.00)	7(7.50)	40(14.13)
	중2	15(24.19)	23(37.10)	10(16.13)	4(6.45)	2(3.23)	3(4.84)	5(8.06)	62(21.91)
	중3	13(25.00)	12(23.08)	23(44.23)	1(1.92)	0(0.00)	1(1.92)	2(3.85)	52(18.37)
	고1	7(14.29)	15(30.61)	17(34.69)	2(4.08)	2(4.08)	0(0.00)	6(12.24)	49(17.31)
	고2	8(21.05)	7(16.67)	14(36.84)	4(10.53)	1(2.63)	0(0.00)	4(10.53)	38(13.43)
	고3	9(21.43)	7(16.67)	19(45.24)	2(4.95)	5(11.90)	0(0.00)	0(0.00)	42(14.84)
계		56(19.79)	75(26.50)	97(34.28)	14(4.95)	13(4.59)	4(1.41)	24(8.48)	283(100.00)
$\chi^2=48.937$, df =30, p<0.05									
출생 순위	첫째	24(20.87)	28(24.35)	45(39.13)	1(0.87)	8(6.96)	0(0.00)	9(7.83)	115(41.07)
	둘째	13(13.98)	31(33.33)	29(31.18)	6(8.45)	3(3.23)	3(3.23)	8(8.60)	93(33.21)
	셋째	9(23.68)	6(15.79)	12(31.58)	5(13.16)	2(5.26)	1(2.63)	3(7.89)	38(13.57)
	셋째 이상	4(36.36)	0(0.00)	6(54.55)	1(9.09)	0(0.00)	0(0.00)	0(0.00)	11(3.93)
	독자	5(21.74)	9(39.13)	4(17.39)	1(4.35)	0(0.00)	0(0.00)	4(17.39)	23(8.21)
계		56(19.79)	75(26.50)	97(34.28)	14(4.95)	13(4.59)	4(1.41)	24(8.48)	283(100.00)
$\chi^2=36.547$, df =24,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 이하	8(57.14)	1(7.14)	3(21.43)	1(7.14)	1(7.14)	0(0.00)	0(0.00)	14(5.07)
	중졸	3(15.79)	6(31.58)	7(36.84)	0(0.00)	1(5.26)	0(0.00)	2(10.53)	19(6.88)
	고졸	19(13.38)	33(23.24)	61(42.96)	7(4.93)	2(1.41)	13(9.15)	142(51.45)	142(51.45)
	대졸 이상	22(21.78)	35(34.65)	24(23.76)	6(5.94)	3(2.97)	2(1.98)	9(8.91)	101(36.57)
계		52(18.84)	75(27.17)	95(34.42)	14(5.07)	12(4.35)	4(1.45)	24(8.70)	276(100.00)
$\chi^2=29.941$, df =18, p<0.05									

진로 상담의 상담자 대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p<0.05 수준, 부모님의 학력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고 3의 경우 45.24%로 친구라고 답한 것이 가장 높았고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친구를 상담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같은 결과는 남학생은 부모님들이 진학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16)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의견차이시 해결방안 () %

배경변인		자신의 뜻대로 말고 나감	부모님 뜻에 따름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	기타	계
성별	남	35(34.31)	21(20.59)	38(37.25)	8(7.84)	102(36.04)
	여	59(32.60)	24(13.26)	80(44.20)	18(9.94)	181(63.96)
계		94(33.22)	45(15.90)	118(41.70)	26(9.19)	283(100.00)
$\chi^2=3.329$, df =3, p>0.05						
학년	중1	8(20.00)	9(22.50)	18(45.00)	5(12.50)	40(14.18)
	중2	18(29.51)	11(18.03)	26(42.62)	6(9.84)	61(21.63)
	중3	19(36.54)	12(23.08)	19(36.54)	2(3.85)	52(18.44)
	고1	21(42.00)	2(4.00)	20(40.00)	7(14.00)	50(17.73)
	고2	12(32.43)	4(10.81)	17(45.95)	4(10.81)	37(13.12)
	고3	15(35.71)	7(16.67)	18(42.86)	2(4.76)	42(14.89)
	계	93(32.98)	45(15.96)	118(41.84)	26(9.22)	282(100.00)
$\chi^2=16.815$, df =15, p>0.05						
출생 순위	첫째	40(34.78)	10(8.70)	55(47.83)	10(4.70)	115(41.22)
	둘째	29(32.58)	18(20.22)	31(34.83)	11(12.36)	89(31.90)
	셋째	15(36.59)	7(17.07)	15(36.59)	4(9.76)	41(14.70)
	셋째이상	4(33.33)	2(16.67)	6(50.00)	0(0.00)	12(7.89)
	독자	4(18.18)	8(36.36)	9(40.91)	1(4.55)	22(7.89)
계		92(32.97)	45(16.13)	116(41.58)	26(9.32)	279(100.00)
$\chi^2=17.318$, df =12,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이하	5(35.71)	4(28.57)	5(35.71)	0(0.00)	14(5.09)
	중졸	6(28.57)	4(19.05)	7(33.33)	4(19.05)	21(7.64)
	고졸	44(31.65)	22(15.83)	58(41.73)	15(10.79)	139(50.55)
	대졸이상	36(35.64)	13(12.87)	45(44.55)	7(6.93)	101(36.73)
계		91(33.09)	43(15.64)	115(41.82)	26(9.45)	275(100.00)
$\chi^2=7.574$, df =9, p>0.05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의견차이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한다는 대답인 반면 중3의 경우 사춘기적 반항심의 발동으로 자신의 뜻대로

밀고나감과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한다는 대답이 36.54%로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조금씩 양보해서(37.25%)이며 여학생의 경우 44.20%가 부모님과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이해하고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표4-17) 학교 생활 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

() %

배경변인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음	교사와의 갈등	학교 친구와의 문제	기타	계
성별	남	62(60.19)	14(13.59)	5(4.85)	18(17.48)	4(3.88)	103(36.92)
	여	97(55.11)	30(17.05)	5(2.84)	32(18.18)	12(6.82)	176(63.08)
계		159(56.99)	44(15.77)	10(3.58)	50(17.92)	16(5.73)	279(100)
$\chi^2=2.574$ df =4 p>0.05							
학년	중1	22(52.38)	6(14.29)	0	10(23.81)	4(9.52)	42(15.11)
	중2	34(56.67)	4(6.67)	4(6.67)	15(25.00)	3(5.00)	60(21.58)
	중3	32(61.54)	9(17.31)	2(3.85)	4(7.69)	5(9.62)	52(18.71)
	고1	26(57.78)	14(31.11)	0	3(6.67)	2(4.44)	45(16.19)
	고2	23(58.97)	5(12.82)	1(2.56)	9(23.08)	1(2.56)	39(14.03)
	고3	21(52.50)	6(15.00)	3(7.50)	9(22.50)	1(2.56)	40(14.39)
계		158(56.83)	44(15.83)	10(3.60)	50(17.99)	16(5.76)	278(100.0)
$\chi^2=30.958$ df =20. p>0.05							
출생 순위	첫째	65(56.03)	12(10.34)	3(2.59)	30(25.86)	6(5.17)	116(42.03)
	둘째	49(55.68)	18(20.45)	4(4.55)	9(10.23)	8(9.09)	88(31.88)
	셋째	20(52.63)	9(23.63)	2(5.26)	6(15.79)	1(2.63)	38(13.77)
	셋째이상	9(75.00)	2(16.67)	0	1(8.33)	0	12(4.35)
	독자	15(68.18)	2(9.09)	1(4.55)	3(13.64)	1(4.55)	22(7.97)
계		158(57.25)	43(15.58)	10(3.62)	49(17.75)	16(5.80)	276(100)
$\chi^2=19.370$ df =16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8(57.14)	2(14.29)	0	4(28.57)	0	14(5.19)
	중졸	12(60.00)	1(5.00)	2(10.00)	4(20.00)	1(5.00)	20(7.41)
	고졸	77(57.46)	21(15.67)	2(1.49)	26(19.40)	8(5.97)	134(49.63)
	대졸이상	58(56.86)	16(15.69)	5(4.90)	16(15.69)	7(6.86)	102(37.78)
계		155(57.41)	40(14.81)	9(3.33)	50(18.52)	16(5.93)	270(100)
$\chi^2=8.995$ df =12 p>0.05							

학교 생활 중 제일 고민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60.19%가 성적으로 인

한 스트레스로, 반면 여학생의 경우 55.11%가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적이 되다 보니 성적이 부진한 중, 고등학생들은 이에 대해 심적으로 매우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18) 학교 선생님과 관계에서 문제되는 요인

() %

배경변인		편애	공부의 강요	인행의 불일치	선생님이 이성으로 느껴짐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기타	계
성별	남	22(26.19)	17(20.24)	14(16.67)	4(4.76)	11(13.10)	16(19.05)	84(35.15)
	여	40(25.81)	23(14.84)	22(14.19)	5(3.23)	45(29.03)	20(12.90)	155(64.85)
계		62(25.94)	40(16.74)	36(15.06)	9(3.77)	56(23.43)	36(15.06)	239(100)
$\chi^2=8.785$ df=5 p>0.05								
학년	중1	9(23.08)	8(20.51)	6(15.38)	1(2.56)	10(25.64)	5(12.82)	39(16.39)
	중2	16(29.63)	9(16.67)	7(12.96)	3(5.56)	12(22.22)	7(12.96)	54(22.69)
	중3	7(17.07)	9(21.95)	3(7.32)	2(4.88)	11(26.83)	9(21.95)	41(17.23)
	고1	10(24.39)	6(14.63)	9(21.95)	2(4.88)	8(19.51)	6(14.63)	41(17.23)
	고2	8(26.67)	3(10.00)	7(23.33)	0	7(23.33)	5(16.67)	30(12.61)
	고3	12(36.36)	4(12.12)	4(12.12)	1(3.03)	8(24.24)	4(12.12)	33(13.87)
계		62(26.05)	39(16.39)	36(15.13)	9(3.78)	56(23.53)	36(15.13)	238(100)
$\chi^2=14.507$ df=25 p>0.05								
출생순위	첫째	24(25.26)	13(13.68)	13(13.68)	3(3.16)	27(28.42)	15(15.79)	95(40.25)
	둘째	19(25.33)	15(20.00)	10(13.33)	3(4.00)	16(21.33)	12(16.00)	75(31.78)
	셋째	9(25.00)	6(16.67)	7(19.44)	1(2.78)	6(16.67)	7(19.44)	36(15.25)
	셋째이상	4(40.00)	2(20.00)	0	0	4(40.00)	0	10(4.24)
	독자	4(20.00)	3(15.00)	6(30.00)	3(10.00)	3(15.00)	2(10.00)	20(8.47)
계		60(25.42)	39(16.33)	36(15.25)	9(3.81)	56(27.73)	36(15.25)	236(100)
$\chi^2=15.838$ df=20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8(66.67)	1(8.33)	1(8.33)	0	2(16.67)	0	12(5.13)
	중졸	3(16.67)	2(11.11)	8(44.44)	0	5(27.78)	0	18(7.69)
	고졸	33(28.21)	24(20.51)	10(8.55)	1(0.85)	25(21.37)	24(20.51)	117(50.00)
	대졸이상	17(19.54)	12(13.79)	17(19.54)	6(6.90)	24(27.59)	11(12.64)	87(37.18)
계		61(26.07)	39(16.67)	36(15.38)	7(2.99)	56(23.93)	35(14.96)	234(100)
$\chi^2=42.442$ df=15 p<0.001								

학교 선생님과 관계에서 문제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학년,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의 학력의 경우 $p<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편애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선생님의 편애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았

다. 이같은 결과는 선생님들의 언행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며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4-19) 성별에 따른 가정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 () %

배경변인		아버지의 술주정	부모의 외도	부모의 편애	가정형편의 어려움	형제들의 탈선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부모의이혼으로 인한 갈등	기타	계
성별	남	20(10.87)	13(7.07)	10(5.43)	31(16.85)	10(5.43)	15(8.15)	54(29.35)	2(1.09)	29(15.76)	184(34.26)
	여	18(5.10)	15(4.25)	39(11.05)	49(13.88)	7(1.98)	35(9.92)	125(35.41)	7(1.98)	58(16.43)	353(65.74)
계		38(7.08)	28(5.21)	49(9.12)	80(14.90)	17(3.17)	50(9.31)	179(33.33)	9(1.68)	87(16.20)	537(100.00)
$\chi^2=19.325$, df =8, p<0.05											
학년	중1	8(11.94)	6(8.96)	3(4.48)	12(17.91)	1(1.49)	6(8.96)	19(28.36)	0(0.00)	12(10.91)	67(12.55)
	중2	8(7.55)	5(4.72)	10(9.43)	12(11.32)	2(1.89)	13(12.26)	47(44.34)	1(0.94)	8(7.55)	106(19.85)
	중3	4(3.51)	8(7.02)	10(8.77)	22(19.30)	4(3.51)	15(13.16)	31(27.19)	2(2.63)	17(14.91)	114(21.35)
	고1	4(4.21)	4(4.21)	1(10.53)	7(7.37)	2(2.11)	6(6.32)	43(45.26)	2(2.11)	17(17.89)	95(17.79)
	고2	8(11.94)	1(1.49)	14(20.90)	12(17.91)	4(5.97)	3(4.48)	15(22.39)	1(1.49)	9(13.43)	67(12.55)
	고3	6(7.06)	4(4.71)	0(0.00)	15(17.65)	4(4.71)	7(8.24)	23(27.06)	2(2.35)	24(28.24)	85(15.92)
계		38(7.12)	28(5.24)	47(8.80)	80(14.98)	17(3.18)	50(9.36)	178(33.33)	9(1.69)	87(16.29)	524(100.00)
$\chi^2=77.735$, df =40, p<0.001											
출생순위	첫째	20(8.97)	11(4.93)	13(5.83)	30(13.45)	9(4.04)	18(8.07)	86(38.57)	6(2.69)	30(13.45)	223(41.92)
	둘째	8(4.55)	10(5.68)	22(12.50)	26(14.77)	5(2.84)	19(10.80)	58(32.95)	2(1.14)	26(14.77)	176(33.08)
	셋째	4(5.80)	2(2.90)	10(14.49)	12(17.39)	2(2.90)	5(7.25)	12(17.39)	1(1.45)	21(30.43)	69(12.97)
	셋째 이상	4(16.67)	2(8.33)	0(0.00)	6(25.00)	0(0.00)	5(20.83)	1(4.17)	0(0.00)	6(25.00)	24(4.51)
	독자	2(5.00)	3(7.50)	2(5.00)	6(15.00)	1(2.50)	2(5.00)	20(50.00)	0(0.00)	4(10.00)	40(7.52)
계		38(7.14)	28(5.26)	47(8.83)	80(15.04)	17(3.20)	49(9.21)	177(33.27)	9(1.69)	87(16.35)	532(100.00)
$\chi^2=58.272$, df =32, p<0.01											
부모님의 학력	중졸 이하	8(25.00)	0(0.00)	0(0.00)	9(28.13)	0(0.00)	5(15.63)	4(12.50)	0(0.00)	6(18.75)	32(6.12)
	중졸	2(4.55)	4(9.09)	2(4.55)	15(34.09)	3(6.82)	4(9.09)	9(20.45)	3(6.82)	2(4.55)	44(8.41)
	고졸	18(7.09)	11(4.33)	20(7.87)	38(14.96)	5(1.97)	29(11.42)	79(31.10)	5(1.97)	49(19.29)	254(48.57)
	대졸 이상	10(5.18)	13(6.74)	27(13.99)	12(6.22)	9(4.66)	10(5.18)	83(43.01)	1(0.52)	28(14.51)	193(36.90)
계		38(7.27)	28(5.35)	49(9.37)	74(14.15)	17(3.25)	48(9.18)	175(33.46)	9(1.72)	85(16.25)	523(100.00)
$\chi^2=92.166$, df =24, p<0.001											

가정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p<0.05 수준, 학년 p<0.001 수준, 출생순위 p<0.01 수준, 부모님의 학력 p<0.00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감(29.35%)과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감(35.41%)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고1학생들이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독자가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서 자신들의 대리 인생을 찾으려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표4-20) 부모의 외도에 대한 책임 대상

() %

배경변인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	부모의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기타	계
성별	남	6(12.50)	4(8.33)	20(41.67)	1(2.08)	0(0.00)	17(35.42)	48(32.65)
	여	6(6.06)	5(5.05)	60(60.61)	2(2.02)	2(2.02)	24(24.24)	99(67.35)
계		12(8.16)	9(6.12)	80(54.42)	3(2.04)	3(2.04)	41(27.89)	147(100)
$\chi^2=6.759$ df =5 p>0.05								
학년	중1	2(8.33)	1(4.17)	10(41.67)	2(8.33)	1(4.17)	8(33.33)	24(16.33)
	중2	2(10.00)	4(20.00)	8(40.00)	1(5.00)	0(0.00)	5(25.00)	20(13.61)
	중3	3(10.71)	0(0.00)	18(64.29)	0(0.00)	0(0.00)	7(25.00)	28(19.05)
	고1	1(3.70)	1(3.70)	18(66.67)	0(0.00)	1(3.70)	6(22.22)	27(18.37)
	고2	1(5.26)	3(15.79)	10(52.63)	0(0.00)	0(0.00)	5(26.32)	19(12.93)
	고3	3(10.34)	0(0.00)	16(55.17)	0(0.00)	0(0.00)	10(34.48)	29(19.73)
계		12(8.16)	9(6.12)	80(54.42)	3(2.04)	2(1.36)	41(27.89)	147(100)
$\chi^2=27.739$ df =25 p>0.05								
출생순위	첫째	6(9.84)	3(4.92)	32(52.46)	2(3.28)	0(0.00)	18(29.51)	61(41.78)
	둘째	3(6.98)	1(2.33)	21(48.84)	0(0.00)	2(4.65)	16(37.21)	43(29.45)
	셋째	0(0.00)	1(4.76)	14(66.67)	0(0.00)	0(0.00)	6(28.57)	21(14.38)
	셋째이상	0(0.00)	1(14.29)	5(71.43)	0(0.00)	0(0.00)	1(14.29)	7(4.79)
	독자	3(21.43)	3(21.43)	8(57.14)	0(0.00)	0(0.00)	0(0.00)	14(9.59)
계		12(8.22)	9(6.16)	80(54.79)	2(1.37)	2(1.37)	41(28.08)	146(100)
$\chi^2=27.390$ df =20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2(18.18)	0(0.00)	4(36.36)	1(9.09)	0(0.00)	4(36.36)	11(7.59)
	중졸	1(7.69)	0(0.00)	9(69.23)	0(0.00)	0(0.00)	3(23.08)	13(8.97)
	고졸	7(10.14)	3(4.35)	36(52.17)	1(1.45)	2(2.90)	20(28.99)	69(47.59)
	대졸이상	1(1.92)	6(11.54)	31(59.62)	1(1.92)	0(0.00)	13(25.00)	52(35.86)
계		11(7.59)	9(6.21)	80(55.17)	3(2.07)	2(1.38)	40(27.59)	145(100)
$\chi^2=15.952$ df =15 p>0.05								

외도에 대한 책임 대상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 모두(41.67%)이며 여학생의 경우도 부모 모두(62.61%)의 책임이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도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 모두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중·고등학생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외도는 원인 제공자와 외도의 주체자가 동시에 잘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4-21) 부모의 이혼에 대한 견해

() %

배경변인		절대 안된다	안맞으면 이혼	맞추어 살면서 고쳐야 함	기타	계
성별	남	42(45.65)	14(15.22)	34(36.96)	2(2.17)	92(35.11)
	여	32(18.82)	61(35.88)	73(42.94)	4(2.35)	170(64.89)
계		74(28.24)	75(28.63)	107(40.84)	6(2.29)	262(100)
		$\chi^2=24.650$ df =3 p<0.001				
학년	중1	15(38.46)	4(10.26)	16(41.03)	4(10.26)	39(14.94)
	중2	13(25.00)	15(28.85)	24(46.13)	0(0.00)	52(19.92)
	중3	8(16.00)	12(24.00)	30(60.00)	0(0.00)	50(19.16)
	고1	12(26.67)	21(46.67)	12(26.67)	0(0.00)	45(17.24)
	고2	12(33.33)	14(38.89)	9(25.00)	1(2.78)	36(13.79)
	고3	13(33.33)	9(23.08)	16(41.03)	1(2.56)	39(14.94)
계		73(27.97)	75(28.74)	107(41.00)	6(2.30)	261(100)
		$\chi^2=40.258$ df =12 p>0.05				
출생 순위	첫째	30(27.78)	34(31.48)	41(37.96)	3(2.78)	108(41.86)
	둘째	22(26.19)	20(23.81)	39(46.43)	3(3.57)	84(32.56)
	셋째	12(35.29)	13(38.24)	9(26.47)	0(0.00)	34(13.18)
	셋째이상	2(18.18)	3(27.27)	6(54.55)	0(0.00)	11(4.26)
	독자	7(33.33)	5(23.81)	9(42.86)	0(0.00)	21(8.14)
계		73(28.29)	75(29.07)	104(40.31)	6(2.33)	258(100)
		$\chi^2=8.847$ df =12 p>0.05				
부모 님의 학력	중졸이하	6(54.55)	1(9.09)	4(36.36)	0(0.00)	11(4.33)
	중졸	10(45.45)	7(31.82)	5(22.73)	0(0.00)	22(8.66)
	고졸	29(22.83)	38(29.92)	56(44.09)	4(3.15)	127(50.00)
	대졸이상	26(27.66)	26(27.66)	40(42.55)	2(2.13)	94(37.01)
계		71(27.95)	72(28.35)	105(41.34)	6(2.36)	254(100)
		$\chi^2=11.357$ df =9 p>0.05				

부모의 이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절대 안된다(45.65%)와 맞추어 살면서 고쳐야 된다(36.96%)와 여학생의 경우 맞추

어 살면서 고쳐야 된다(42.94%)와 안 맞으면 이혼(35.88%)해야 된다고 나타났다. 이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남학생은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안 맞으면 이혼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결혼후 심리적인 고통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느끼는 것으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4-22) 친구문제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 () %

배경변인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친구와의 갈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에 대한 부담	친구의 탈선	기타	계
성별	남	38(40.00)	33(34.74)	1(1.05)	13(13.68)	10(10.53)	95(35.45)
	여	68(39.31)	76(43.93)	6(3.47)	14(8.09)	9(5.20)	173(64.55)
계		106(39.55)	109(40.67)	7(2.61)	27(10.07)	19(7.09)	268(100)
$\chi^2=7.007$ df =4 p>0.05							
학년	중1	12(30.77)	18(46.15)	2(5.13)	3(7.69)	4(10.26)	39(14.61)
	중2	32(54.24)	17(28.81)	1(1.69)	5(8.47)	4(6.78)	59(22.10)
	중3	15(31.91)	20(42.55)	1(2.13)	9(19.15)	2(4.26)	47(17.60)
	고1	23(47.92)	16(33.33)	2(4.17)	3(6.25)	4(8.33)	48(17.98)
	고2	11(32.35)	16(47.06)	1(2.94)	4(11.76)	2(5.88)	34(12.73)
	고3	12(30.00)	22(55.00)	0(0.00)	3(7.50)	3(7.50)	40(14.98)
계		105(39.33)	109(40.82)	7(2.62)	27(10.11)	19(7.12)	267(100)
$\chi^2=21.457$ df =20 p>0.05							
출생 순위	첫째	48(43.24)	45(40.54)	1(0.90)	10(9.01)	7(6.31)	111(41.89)
	둘째	33(40.24)	25(30.49)	1(1.22)	13(15.85)	10(12.20)	82(30.94)
	셋째	13(35.14)	18(48.65)	2(5.41)	2(5.41)	2(5.41)	37(13.96)
	셋째이상	3(25.00)	8(66.67)	1(8.33)	0(0.00)	0(0.00)	12(4.53)
	독자	9(39.13)	11(47.83)	1(4.35)	2(8.70)	0(0.00)	23(8.68)
계		106(40.00)	107(40.38)	6(2.26)	27(10.19)	19(7.17)	265(100)
$\chi^2=21.999$ df =16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5(38.46)	6(46.15)	1(7.69)	1(7.69)	0(0.00)	13(5.00)
	중졸	10(45.45)	11(50.00)	0(0.00)	1(4.55)	0(0.00)	22(8.40)
	고졸	40(31.25)	57(44.53)	4(3.13)	15(11.72)	12(9.38)	128(49.23)
	대졸이상	48(49.48)	34(35.05)	0(0.00)	9(9.28)	6(6.19)	97(37.31)
계		103(39.62)	108(41.54)	5(1.92)	26(10.00)	18(6.92)	260(100)
$\chi^2=16.807$ df =12 p>0.05							

친구 문제중 제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40.00%)와 친구와의 갈등(34.74%)으로 나타났고,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갈등(43.93%)과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39.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즘 친구와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여 주는 진정한 친구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

(표4-23) 친구와의 갈등 원인 () %

배경변인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좋아해서	생활과 성격차이	성적에 대한 경쟁심	친구가 유난히 선생님의 사랑을 받음	계
성별	남	9(10.59)	56(65.88)	17(20.00)	3(3.53)	85(33.46)
	여	27(15.98)	122(72.19)	18(10.65)	2(1.18)	169(66.54)
계		36(14.17)	178(70.08)	35(13.78)	5(1.97)	254(100)
$\chi^2=6.648$ df =3 p>0.05						
학년	중1	9(25.71)	16(45.71)	7(20.00)	3(8.57)	35(13.83)
	중2	7(12.07)	38(65.52)	12(20.69)	1(1.72)	58(22.92)
	중3	5(10.87)	37(80.43)	3(6.52)	1(1.27)	46(18.18)
	고1	4(8.51)	35(74.47)	8(17.02)	0(0.00)	47(18.58)
	고2	4(14.29)	22(78.57)	2(7.14)	0(0.00)	28(11.07)
	고3	7(17.95)	29(74.36)	3(4.69)	0(0.00)	39(15.42)
계		36(14.23)	177(69.96)	35(13.83)	5(1.98)	253(100)
$\chi^2=26.635$ df =15 p<0.05						
출생순위	첫째	17(15.74)	76(70.37)	13(12.04)	2(1.85)	108(42.86)
	둘째	9(11.84)	53(69.74)	12(15.79)	2(2.63)	76(30.16)
	셋째	2(5.88)	28(82.35)	3(8.82)	1(2.94)	34(13.49)
	셋째이상	4(30.77)	8(61.54)	1(7.69)	0(0.00)	13(5.16)
	독자	4(19.05)	11(52.38)	6(28.57)	0(0.00)	21(8.33)
계		36(14.29)	176(69.84)	35(13.89)	5(1.98)	252(100)
$\chi^2=12.489$ df =12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4(28.57)	8(57.14)	1(7.14)	1(1.74)	14(5.67)
	중졸	4(19.05)	10(47.62)	7(33.33)	0(0.00)	21(8.50)
	고졸	17(14.66)	84(72.41)	13(11.21)	2(1.72)	116(46.96)
	대졸이상	10(10.42)	70(72.92)	14(14.58)	2(2.08)	96(46.96)
계		35(14.17)	172(69.64)	35(14.17)	5(2.02)	247(100)
$\chi^2=14.379$ df =9 p>0.05						

친구와의 갈등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의 경우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중3의 경우 생활과 성격차이(80.43%)로, 고2의 경우 생활과 성격차이(78.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친구들과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원인인 것 같다.

(표4-24) 신앙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문제

() %

배경변인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타인의 신앙 생활에 대한 회의감	나의 이중적 생활 모습	교회지도자에 대한 불만	교회 분위기 환경여건	기타	계
성별	남	8(8.42)	41(43.16)	6(6.32)	20(21.05)	3(3.16)	4(4.21)	13(13.68)	95(36.68)
	여	12(7.32)	60(36.59)	5(3.05)	51(31.10)	4(2.44)	17(10.30)	15(9.15)	164(63.32)
	계	20(7.72)	101(39.00)	11(4.25)	71(27.41)	7(2.70)	21(8.11)	28(10.81)	259(100)
$\chi^2 = 8.859$ df = 6 p > 0.05									
학년	중1	5(14.71)	14(41.18)	1(2.94)	5(14.71)	2(5.88)	3(8.82)	4(11.76)	34(13.18)
	중2	6(10.91)	22(40.00)	3(5.45)	10(18.18)	2(3.64)	4(7.27)	8(14.55)	55(21.32)
	중3	0(0.00)	25(58.14)	0(0.00)	8(18.60)	2(4.65)	2(4.65)	6(13.95)	43(16.67)
	고1	1(2.04)	16(32.65)	1(2.04)	20(40.82)	1(2.04)	6(12.24)	4(8.16)	49(18.99)
	고2	2(5.56)	11(30.56)	1(2.78)	15(41.67)	0(0.00)	3(8.33)	4(11.11)	36(13.95)
	고3	6(14.63)	12(29.27)	5(12.20)	13(31.71)	0(0.00)	3(7.32)	2(4.88)	41(15.89)
	계	20(7.75)	100(38.76)	11(4.26)	71(27.52)	7(2.71)	21(11.76)	28(10.85)	258(100)
$\chi^2 = 45.978$ df = 30 p < 0.05									
출생순위	첫째	7(6.36)	38(34.55)	4(3.64)	39(35.45)	3(2.73)	8(7.27)	11(10.00)	110(42.97)
	둘째	6(7.32)	37(45.12)	3(3.66)	17(20.73)	3(3.66)	7(8.54)	9(10.98)	82(32.03)
	셋째	3(9.09)	10(30.30)	2(6.06)	9(27.27)	1(3.03)	3(9.09)	5(15.15)	33(12.89)
	셋째 이상	2(18.18)	3(27.27)	0(0.00)	1(9.09)	0(0.00)	3(27.27)	2(18.18)	11(4.30)
	독자	2(10.00)	10(50.00)	2(10.00)	5(25.00)	0(0.00)	0(0.00)	1(5.00)	20(7.81)
	계	20(7.81)	98(38.28)	11(4.30)	71(27.43)	7(2.73)	21(8.20)	28(10.94)	256(100)
$\chi^2 = 22.295$ df = 24 p > 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 이하	5(38.46)	3(23.08)	0(0.00)	1(7.69)	0(0.00)	2(15.38)	2(15.38)	13(5.16)
	중졸	2(10.00)	5(25.00)	1(5.00)	8(40.00)	1(5.00)	0(0.00)	3(15.00)	20(7.94)
	고졸	7(5.51)	51(40.16)	5(3.94)	37(29.13)	2(1.57)	11(8.66)	14(11.02)	127(50.40)
	대졸 이상	6(6.52)	38(41.30)	5(5.43)	22(23.91)	4(4.35)	8(8.70)	9(9.78)	92(36.51)
	계	20(7.94)	97(38.49)	11(4.37)	68(26.98)	7(2.78)	21(8.33)	28(11.11)	252(100)
$\chi^2 = 28.341$ df = 18 p > 0.05									

신앙 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의 경우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중3의 경우 58.14%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신앙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생활 모습에 매우 실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25)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미치는지 유무 () %

배경변인		그렇다	아니다	기타	계
성별	남	56(53.33)	42(40.00)	7(6.67)	105(36.59)
	여	107(58.79)	68(37.36)	7(3.85)	182(63.41)
계		163(56.79)	110(38.33)	14(4.88)	287(100)
$\chi^2=1.556$ df =2 p>0.05					
학년	중1	19(45.24)	21(50.00)	2(4.76)	42(14.69)
	중2	31(52.54)	23(38.98)	5(8.47)	59(20.63)
	중3	25(48.08)	26(50.00)	1(1.92)	52(18.18)
	고1	35(67.31)	14(26.92)	3(5.77)	52(18.18)
	고2	25(64.10)	13(33.33)	1(2.56)	39(13.64)
	고3	27(64.29)	13(30.95)	2(4.76)	42(14.69)
계		162(56.64)	110(38.46)	14(4.90)	286(100)
$\chi^2=12.614$ df =10 p>0.05					
출생순위	첫째	71(60.17)	40(33.90)	7(5.93)	118(41.70)
	둘째	51(56.07)	35(38.89)	4(4.44)	90(31.80)
	셋째	20(50.00)	17(42.50)	3(7.50)	40(14.13)
	셋째이상	8(61.54)	5(38.46)	0(0.00)	13(4.59)
	독자	10(45.45)	12(54.55)	0(0.00)	22(7.77)
계		160(56.54)	109(38.52)	14(4.95)	283(100)
$\chi^2=5.948$ df =8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9(64.29)	3(21.43)	2(14.29)	14(5.04)
	중졸	15(71.43)	6(28.57)	0(0.00)	21(7.55)
	고졸	77(54.61)	57(40.43)	7(4.96)	141(50.72)
	대졸이상	58(56.86)	39(38.24)	5(4.90)	102(36.69)
계		159(57.19)	105(37.77)	14(5.04)	278(100)
$\chi^2=6.024$ df =6 p>0.05					

부모님의 신앙 생활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유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53.33%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반면 여학생의 경우 58.79%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직접, 간접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앙생활 자체가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지켜져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26) 부모님의 신앙 계승 유무

() %

배경변인		그렇다	아니다	기타	계
성별	남	31(29.81)	65(62.50)	8(7.69)	104(37.14)
	여	42(23.86)	126(71.59)	8(4.55)	176(62.86)
계		73(26.07)	191(68.21)	16(5.71)	280(100)
$\chi^2=2.811$ df =2 p>0.05					
학년	중1	17(42.50)	21(52.50)	2(5.00)	40(14.34)
	중2	10(16.95)	46(77.97)	3(5.08)	59(21.15)
	중3	13(25.49)	35(68.63)	3(5.88)	51(18.28)
	고1	22(44.00)	25(50.00)	3(6.00)	50(17.92)
	고2	5(13.51)	29(78.38)	3(8.11)	37(13.26)
	고3	6(14.29)	34(80.95)	2(4.76)	42(15.05)
계		73(26.16)	190(68.10)	16(5.73)	279(100)
$\chi^2=23.405$ df =10 p<0.01					
출생순위	첫째	28(24.56)	77(67.54)	9(7.89)	114(41.30)
	둘째	26(28.89)	62(68.89)	2(2.22)	90(32.61)
	셋째	10(26.32)	25(65.79)	3(7.89)	38(13.77)
	셋째이상	2(16.67)	8(66.67)	2(16.67)	12(4.35)
	독자	6(27.27)	16(72.73)	0(0.00)	22(7.90)
계		72(26.09)	188(68.12)	16(5.80)	276(100)
$\chi^2=7.768$ df =8 p>0.05					
부모님의 학력	중졸이하	5(35.71)	8(57.14)	1(7.14)	14(5.17)
	중졸	5(23.81)	13(61.91)	3(14.29)	21(7.75)
	고졸	30(21.74)	102(73.91)	6(4.35)	138(50.92)
	대졸이상	28(28.50)	64(65.31)	6(6.12)	98(36.16)
계		68(25.09)	187(69.00)	16(5.90)	271(100)
$\chi^2=5.595$ df =6 p>0.05					

부모님의 신앙 계승 유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별, 출생순위, 부모님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의 경우 $p<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고3의 경우 80.95%가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님의 신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님의 신앙 생활을 그대로 따르고 싶지는 않다고 대답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V. 要約과 結論

1. 要 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기독교 청소년들의 문제가 그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가장 큰 고민 문제는 남학생의 경우 이성 문제(20.43%)와 진로 문제(20.07%)로 다른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진로 문제(20.95%)와 개인 생활 문제(19.60%)로 나타났다. 남·여 중·고등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진로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결과는 우리의 교육이 청소년들의 창조성을 개발해 주고, 자율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전인교육 보다도 지식 주입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등 파생적으로 운영되어 가치 추구의 교육보다는 지위추구의 교육으로 변질됨으로써 교육을 받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주의, 요령주의 등의 의식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2. 학년에 따른 진로 문제는 중학생들 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3 학생(31.21%)과 고3 학생(29.73%)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진로 문제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같은 현상은 상급학교 진학이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적 갈등이 무거운 짐으

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출생 순위에 따른 진로 문제는 출생 순서가 낮은 학생일수록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상의 학생(27.03%)과 셋째 학생(26.85%)이 다른 출생 순서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출생 순서가 낮으면 낮을수록 출생 순서가 빠른 형제들에게 가정과 부모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잠재의식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둔 부모들은 가정에서는 출생 순서가 낮은 학생들이 욕구 충족의 문제로 가정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반발하는 경향을 떨 수도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하며 정신적 갈등을 느끼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부모님의 학력에 따른 진로 문제는 부모님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자녀들이 진로 문제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25.92%가 진로 문제로 고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결과는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진학에 바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의 진학이 곧 자신의 진학으로 여기는 대리 만족의 생활 때문으로 여겨진다.

5. 중고등학생들의 제일 고민하는 이성문제는 진로 문제에 비해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진로 문제 못지않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학년별로는 중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3 학생과 고3 학생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 이성 교제에 적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앞에서 본 진학을 앞두고 공부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집중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結 論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 기독교 청소년들의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진로 문제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입시 문제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참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가정과 교회 학교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 된다. 여기에 이성 문제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지 못해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이성교제를 못하고 탈선과 방황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기성 세대들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정해 주고 건전하고 순결한 교제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둘째 - 기독교 청소년들은 중3, 고3 학생들이 진로 문제에 고민을 하는 반면 신앙 생활에 대한 고민도 진로 문제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진학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민과 이상적인 삶의 갈등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같은 고민은 일방적인 진학 위주의 교육 보다는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진로 지도에 더욱 더 큰 비중을 두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 오늘날은 핵가족의 영향으로 자녀의 수가 독자 또는 둘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 현실이다. 그러나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출생 순서가 낮은 자녀들이 출생 순서가 빠른 형제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출생 순서가 낮은 자녀들이 부

모들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부모와 출생 순서가 빠른 형제를 미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반항과 불만의 표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것이다.

넷째 - 지금 이 시대는 고학력의 시대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지나친 부모의 기대로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적 부담이 크다. 학력이 그 사회의 기준이 되기 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적성이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과열 입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학력 시대에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무분별한 진학만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나라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참된 인격을 소유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오늘의 청소년 문제의 근원이 잘못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파생된 것을 정확히 인식하여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아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國 內 文 獻

- 강주태, 『청년 심리학』, 서울 : 형성출판사, 1984
- 계광개, 『청년 심리학』, 서울 : 금자서방, 1964
- 고용복, 『사회 심리학』, 서울 : 진명사, 1971
-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 양서원, 1984
- 김난예, 『골드만의 종교 사고발달과 기독교 교육』, 교육교회, 1984.
- 김용수, 『청소년 문제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재은, 『자녀의 의식 구조와 자율성 지도』, “선도”, 제2호 서울 : 전국 검찰 소년 선도위원연합회, 1991.
- 김태길, 『우리들의 가치관 의식과 한국의 장래』, 월간 중앙, 서울 : 중앙 일보사, 1973.
- 김홍규, 『생활지도』, 서울 : 세광공사, 1981
- 문교부, 『청소년 백서』, 전국 학생 체격 통계표, 교육부 : 1983.
- 민영순, 『발달 심리학』, 서울 : 교육 출판사, 1982
- 박명진,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 문화』, “포스트 모던 문화의 관점 - 신세대의 감성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계양서관 : 1981
- 박무익, 『광고 정보』, “청소년 시장의 규모와 정의”, 한국 방송

- 광고 공사, 1983
- 박영선,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서울 : 새순출판사, 1985,
- 박용현,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 교육출판사, 1973
- 박용현, 『학교와 사회』, 서울 : 배영사, 1973
- 서봉연·유안진, 『인간 발달』, 서울:한국 방송 통신 대학 출판부, 1985.
- 소도홀름, 『학생을 이해하려면』; 양은순 옮김,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 심지선, 『가정.학교.사회의 협동,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지도』, 서울 : 서울 특별시 교육 위원회, 1985
- 안재정, 『비행 청소년의 의식』, 서울:한국 기독교 청소년 선교회, 청소년 선도 총서 : 1984
- _____ 『 학교 폭력과 교사의 역할』, 서울 : 한국 청소년 선교회, 1983.
- _____ 『중고생 성교육과 상담』, 서울 : 한국 기독교 청소년 선교회, 청소년 선도 총서6, 1984.
- 윤덕중, 『범죄 사회학』, 서울 : 박영사.
- 윤태림, 『청년 심리학』, 서울 : 법문사, 1981
- 이계백, 『공사 생도 가치관에 관한 연구』, - R.M. Willian Jr American Society (N.Y:alfded A. Knopf), pp374-375를 인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이상주, 『가치관 형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3

- 이상은·장종철, 『한국의 신세대와 기독교』, 기독교 사상 제353집, 1994.
- 이은숙, 『교회 운동론』, 서울 : 아침, 1985.
- 이재창,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제17집』, 서울 :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 1987.
- 이한교,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춘천 : 강원대 논문집, 1980.
-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서울 : 배영사, 1985.
『교회와 교육학』, 서울 : 배영사, 197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과제』, 서울 : 제5회 청소년상 심포지움, 1979.10.25.
- 정원식, 『교육 환경론』, 서울 : 교육 출판사, 1977.
『정의의 개념과 학습』, 정의의 교육, 서울 : 배영사, 1969.
- 정은영,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회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정태기, 『한국 교회와 청소년 프로그램』, 한국의 청소년상, 서울 : YMCA, 1985.
- 정한모외, 『한국 교육의 미래』, 서울 : 배영사, 1978.
- 조석원, 『교회 학교 교육 계획서』, 서울 : 양서각, 1986.
총회 남선교회 지도 위원회, 『교회와 청소년 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 한국 교육 개발원, 『청소년 의식 구조 및 형성 배경』, 1972.

外 國 文 獻

- James C. Livingstone, Modern Cristian Thought, NewYork :
McMillian Publishing co, 1971.
- Karrison.K.C, Psychology of Adolescence, (othed), NewYork :
Prentice Hall, Inc. 1965.
- Kluckhohn C. and et al, 「Olues and Value - Orien 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Toward a Geneval Theory
of Action, (ed) In T.Parsons and E.A.Shi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l, 1951
- Kurt Baier, 「What is Value? An Analysis of the Concept」, in
Kurt Baier and Nicolas Rescher(eds), Value and the
Future, NewYork:Free Press, 1971.
- Malm M. and Jamison O.G, Adolescence, NewYork : McGraw, Hill
Book Co, 1952.
- Newcomb. T. K.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New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Rolf E. Muuss, 「청소년 이론 : 송종두 역,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1
- Rushell. D. H, Childrens Thinking, Quoted in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York :
The Seabury Press, 1986.
- Shuttleworth. F. K, The Physical and Mental Growth of Boys and

Girls Age 6 to 19 in Relation to Age at Maximum
Growth, 1939.

Thomas H. Groome,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과 신앙 교육』, 교
육 교회, 1984.2.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Living Problem for Adolescent Education in the Church

Hong, Ho-soo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Based up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rawn:

Firstly, the most agonizing problem for christian adolescents was shown to be the future career problem, like general adolescents. Nowadays, this allows adolescents to recognize the necessity for true education free from the pain of the entrance examination, which is thought to be the task that will have to be solved by all of household, church and school. As for the problem of the opposite sex, adolescents have many interests in the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but failure to foster the

environment in which adolescents can have an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discourages adolescents from having a sound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and prompts them to have deviation and wandering.

Therefor, the older generation will have to recognize adolescents'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as the desirable phenomenon and guide them to have a wholesome and chaste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Secondly, it was shown that christian adolescents were agonized about the problem of the future career path, especially middle school 3rd-graders and high-school 3rd-graders, while they had the agony on the religious life almost similar to the future career path.

This result indicates that christian adolescents have the agon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actualistic agony and the ideal life prior to admission into higher school. This agony suggests that adolescents will have to be motivated to feel satisfied with their life with the greater emphasis on the career path guidance tailored to their aptitude and talents than the one-sided education centered to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

Thirdly, the reality i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in a family

is one or less than two due to the influence of the nuclear family. But the larger number of children the family has the more disadvantages the children of the lower order of birth receive from the brother of the higher order of birth. This phenomenon shows the fact that children in lower order of birth is likely to misunderstand their parents and they may have a tendency to hate their parents and the brother of the higher birth order, and exhibit the expression of revolt and complaint. Therefore, parents will hav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with the same expectation, interest and love toward them

Fourthly, the current age is the one of the high level of academic background. The fact that the higher level of academic background parents make their children feel agonized on the future career problem means that adolescents' psychological burden is largely due to parents' excessive expectation to them, when the individual's aptitude and talent becomes the yard stick for the living of society rather than the academic background, several problems arising from overheated entrance examinations can be solved.

It is thought that the high proportion of the unemployed with the higher academic background in the age of the high academic

career has originated from the excessive greed of parents who require only indiscriminate entrance into the school of higher grade. As we can not expect adolescents to grow up to retain the true character in the education oriented to the entrance examination, we must realize that i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actively cope with the adolescent problem in accurate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root cause for today's adolescent problem derives from the misleading education oriented to the entrance examination.

(附錄)

敎會 靑少年敎育을 위한 生活問題 分析 관한 研究

안녕하십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 빈거로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청소년의 신앙과 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를 다음에 열거 하였으니 읽어보신 후에 꾸밈없이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한 좋은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본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1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 전공

홍 호 수 드림

※ 해당되는 부분에 ○표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기록해 주세요

1. 당신의 성별은? (1) 남() (2) 여()

2. 당신의 학년은? (1) 중1() (2) 중2() (3) 중3()
(4) 고1() (5) 고2() (6) 고3()

3. 당신의 형제순위는?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셋째이상() (5) 독자나 독녀()

4. 당신 부모의 학력은? (1) 중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이상()

설문지

1. 당신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2가지만 표시해 주세요.

- (1) 이성문제() (2) 자신의 개인생활문제() (3) 신앙문제()
(4) 학교생활문제() (5) 친구문제() (6) 가정과 부모문제()
(7) 진로문제() (8) 기타()

2.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 전에 사귀었었다()

3. 이성교제중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2개만 표시해 주세요.

- (1)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귀고 싶어서() (2) 친구와의 삼각관계()
(3) 헤어진 이성을 잊지 못해서() (4) 순결을 잃어서()
(5)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서(연예인, 사돈, 동성, 유부남, 선생님·)()
(6) 심한 자위행위를 해서() (7) 기타()

4. 순결을 잃었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 (1) 남자친구() (2) 사촌이나 삼촌() (3) 친오빠()
(4) 아는 오빠() (5) 주위의 유부남() (6) 아버지()
(7) 기타()

5. 이성문제가 발생시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

- (1) 친구() (2) 선생님() (3) 부모님()
(4) 친오빠나 누나, 언니, 형() (5)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6) 청소년 전문 상담실()

6. 이성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생활이 이성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까?

- (1) 매우 도움을 준다() (2) 도움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자신의 개인생활중 제일 고민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세요

- (1) 외모의 열등감() (2) 학교 성적() (3) 고칠 수 없는 습관()
(4) 의지가 약해서() (5) 죽음에 대한 공포() (6) 고독, 외로움()
(7) 자신의 괴팍한 성격() (8) 미래에 대한 자신감 결여()
(9) 기타()

8. 자신의 외모중 어디가 불만입니까?

- (1) 눈() (2) 코() (3) 입() (4) 머리() (5) 턱()
(6) 머리카락() (7) 목() (8) 가슴() (9) 허리()
(10) 다리() (11) 기타()

9. 성형수술로 외모를 고치고 싶습니까?

- (1) 고치고 싶다() (2) 그대로가 좋다() (3) 망설이고 있다()

10. 자신의 고칠 수 없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 (1) 술() (2) 담배() (3) 도박() (4) 낭비()
(5) 폭력() (6) 약물복용() (7) 기타()

11.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12.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기타()

18. 학교 선생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편애() (2) 공부의 강요() (3) 언행의 불일치()
(4) 선생님이 이성으로 느껴져서() (5)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6) 기타()

19. 가정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2가지만 표시해 주세요.

- (1) 아버지의 술주정() (2) 부모의 외도() (3) 어머니의 편애()
(4) 가정형편의 어려움() (5) 형제들의 탈선() (6) 부모의 무관심()
(7)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8)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갈등()
(9) 기타()

20. 부모의 외도는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아버지() (2) 어머니() (3) 부모 모두()
(4) 부모님의 친구() (5) 할아버지나 할머니() (6) 기타()

21. 부모님의 이혼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1) 어떤 이유로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2)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해야 한다()
(3) 서로 맞추어 살면서 고쳐야 한다()
(4) 기타()

22. 친구문제중 제일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2) 친구와의 갈등()

- (3)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에 대한 부담()
 (4) 친구의 탈선() (5) 기타()

23. 친구와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1)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좋아해서()
 (2) 생활과 성격차이() (3) 성적에 대한 경쟁심()
 (4) 친구가 유난히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때()

24. 신앙문제로 제일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2)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3)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4) 나의 이중적 생활모습()
 (5) 교회지도자에 대한 불만() (6) 교회의 분위기 및 환경여건()
 (7) 기타()

25.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3) 기타()

26.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3) 기타()